> 사람의 흉중에는 각기 하나의 성인이 있으나, 다만 스스로 믿음이 미치지 못하여 모두 묻히고 만다. …… 사람에게 있는 양지는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 없앨 수 없는 것이니, 비록 도적이라도 또한 스스로 도적질 하는 것이 부당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도적질한다고 하면 그는 도리어 부끄러워하는 것이다.[22]

양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다. 양지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天理)로서[23]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양명 철학에서 인간은 이 양지라는 지선한 가치를 본성으로 내재하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양명철학에 있어 나의 도덕 주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 양지임을 자각하는 과정이다.

핵심역량은 사회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 요소이다.[24] 그렇다면 양명철학을 인성교육에 활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핵심역량은 무엇인가? 인간을 태어나면서부터 양지를 내재한 존재로 본 양명의 인간관에 바탕하여 핵심역량을 제시하면 그것은 인성역량이다. 왜냐하면 양명철학에서는 이미 인간을 도덕적 완성자로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근거는 아래 양명의 성인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 하루는 왕여지가 나갔다 돌아오자 선생께서 그에게 "나다니면서 무엇을 보았는가?"하고 물었다. 왕여지는 "온 거리의 사람이 성인임을 보았습니다."하고 답하였다. 선생은 "너는 온 거리의 사람이 성인인 것을 보았고 온 거리의 사람들은 네가 성인인 것을 보았다"하고 말하였다. 또 어느 날 동몽석이 나갔다가 돌아와서 선생을 뵙고 말하였다. "오늘 기이한 일을 보았습니다." 선생이 "무엇이 이상한가?"라고 물었다. 동몽석이 "온 거리의 사람이 모두 성인임을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선생은 "이것은 또한 평상적인 일이다. 무엇이 이상한 일인가!"라고 답하셨다.[25]

위 문장에서 양명은 온 거리의 사람이 모두 성인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양명의 이러한 입장은 '인간이면 누구나 모두 성인이 될 수 있다.' 는 전통 유가적 입장을 넘어선것으로 양명은 인간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 "이미 성인이다." 라고

---

22) 『傳習錄』下, 「陣九川錄」, 207조목, "人胸中各有個聖人, 只自信不及, 都自埋倒了.…良知在人, 隨你如何不能泯滅, 雖盜賊亦自知不當爲盜, 喚他做賊, 他還忸怩."
23) 『傳習錄』中, 「答歐陽崇一」, 169조목. "良知是天理之昭明靈覺處, 故良知卽是天理."
24) 백승수,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의 당면과제와 개선 방향」, 『교양교육연구』 14(3), 2020, 17쪽.
25) 『傳習錄』下, 「黃以方錄」, 313조목, "一日王汝止出遊歸, 先生問曰, 遊何見. 對曰, 見滿街都是聖人. 先生曰, 你看滿街人是聖人. 滿街人看你是聖人. 又一日董夢石出游而歸. 見先生曰, 今日見一奇異事. 先生曰, 何異. 對曰, 見滿街都是聖人. 先生曰, 此亦常事耳. 何足爲異?"

말한다. 양명의 이 같은 성인관이 가능한 까닭은 양명은 양지를 지닌 인간을 도덕 주체로 바라보고 그 내면에 이미 이루어진 도덕적 완전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26]

도덕적 주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가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도덕적 자아관과 도덕적 가치관을 설계한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그러므로 양지를 내재한 인간을 이미 완성된 도덕 주체로 바라보고 이 양지의 자각과 실현을 강조한 양명철학을 대학의 인성교육에 활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핵심역량은 바람직한 가치관과 도덕적 판단력을 바탕으로 참되고 성숙한 인간성을 함양할 수 있는 인성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 3.1.2 진성측달한 양지에 바탕 한 공동체 역량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양한 존재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대학의 인성교육에서는 개인의 도덕성을 보존하는 개인적 차원의 인성교육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사회적 차원의 인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대학의 인성교육이 사회적 차원에서 구현되지 않고 개인적 차원에서만 머무른다면, 이는 다양한 존재가 어울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인성교육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목표와 사회적 차원의 목표가 함께 추구되어야 하고, 인성교육은 내면의 도덕 주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인성역량과 더불어 타인의 생각, 감정, 관점을 이해하는 공감능력과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양명은 학문이 도덕성의 자각과 함양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역할 이외에도 사회적 역할이 있음을 강조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유학공부를 선택하였다.

> 내가 어릴 적에 성학(聖學)을 구하였으나 얻은 바가 없어, 老佛 二氏의 가르침에 돈독히 뜻을 두었다. 그 후 용장의 오랑캐 지역에서 삼년을 지낸 후, 비로소 성인됨의 단서를 발견하게 되어, 지난 이십년 동안 쓸데없는 공부를 한 것에 대해 후회하였다. 노불(老佛) 이씨(二氏)의 학문은, 그 오묘함이 성인의 학문과 털끝 하나만큼의 차이만 있을 뿐이므로 변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오직 성학에만 뜻을 돈독하게 두어야만 그 아주 작은 차이를 탐구하여 구분

26) 김세서리아, 「양명학의 도덕 주체를 통한 여성 주체 형성의 모색」, 『陽明學』 15호, 한국양명학회, 2005, 93쪽 참조.

할 수 있을 것이다.[27]

양명은 노불(老佛)이 개인의 깨달음이라는 사적 욕망에 급급하여 자신과 한 몸인 타자(他者)와 타물(他物)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한다.[28] 그리고 인간의 관계 지향적 욕구를 끊어버리고 개인적 차원의 깨달음만을 지향하는 노불(老佛)을 떠나,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 다시 성학(聖學)의 학문으로 돌아갔다고 말한다. 즉 양명은 유학공부를 개인의 깨달음을 공동체에 확충하는 공부로 파악한 것이다.

양명의 철학은 도덕 주체인 내가 양지를 중심으로 타인, 사회, 국가, 지구공동체와 관계 맺음을 통해 치양지(致良知)할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양명철학은 이 같은 목표의 실현이 가능한 이유를 양지의 진성측달(眞誠惻怛) 능력에서 찾고 있다.[29] 양지의 진성측달(眞誠惻怛) 능력은 양지가 타인이나 존재물에 감응하여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능력으로 이를 현대적 표현으로 바꾸면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양명철학에서 진성측달 하는 양지는 개인과 타인 간의 간극을 없애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하는데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아파하는 마음'인 진성측달(眞誠惻怛)의 마음은 개인적 도덕성을 떠나 마주 선 타자에게 공감하는 마음과 다름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성측달하는 양지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적합한 '사회적 행동(孝悌忠信)'을 주재한다.[30]

> 양지(良知)라는 것은 단지 천리의 저절로 그러한 밝은 깨달음이 발현하는 곳이며, 단지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측은하게 여겨 아파하는 마음(眞誠惻怛)이며, 이것이 마음의 본래 모습이다. 하여 이 양지의 진성측달(眞誠惻怛)을 부모를 모시는데 실현하면 곧 효(孝)를 행하는 것이고, 이 양지의 진성측달을 형을 따르는데 실현하면 곧 형제간에 우애롭게 되는 것이며, 이 양지의 진성측달을 임금을 섬기는데 실현하면 바로 충성하는 것이 된다.[31]

양명이 추구하는 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선천적인 도덕성(양지)을 자각하고 이 본

---

27) 『王陽明全集』 卷33, 「年譜 一」, "吾幼時求聖學不得, 亦嘗篤志二氏. 其後居夷三載, 始見聖人端緖, 悔錯用功二十年. 二氏之學, 其妙與聖人只有毫厘之間, 故不易辨. 惟篤志聖學者, 始能究析其隱微, 非測憶所及也."
28) 이우진, 『王陽明 工夫論의 教育學的 解釋』,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학위논문, 2011, 177쪽.
29) 정인재, 한정길 역, 『傳習錄』 2, 청계, 597쪽.
30) 김영건, 「공감적 영성의 발견과 인간 및 자연과의 관계 회복」, 『陽明學』 32호, 2012, 57쪽.
31) 『傳習錄』 中, 「答聶文蔚 二」, 189조목, "蓋良知只是一箇天理自然明覺發見處, 只是一箇眞誠惻怛, 便是他本體. 故致此良知之眞誠惻怛以事親, 便是孝, 致此良知之眞誠惻怛以從兄, 便是弟, 致此良知之眞誠惻怛以事君, 便是忠."

성이 주체적인 실천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양지가 행위로 드러나는 곳은 일상생활과 괴리된 곳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 속으로 그 곳에서 양지는 마주하는 대상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매 순간 발현된다. 따라서 양지는 일상적인 삶을 떠나서, 타자와의 관계 맺음을 떠나서는 실현될 수 없다.

제4차 산업혁명은 그 어떤 산업화의 과정보다 빠른 속도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된 세상은 겪어보지 않은 미래이기에 불확실성을 전제한다. 그러나 인류는 꾸준히 미래에 직면한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사회구성원 간의 기계적인 협력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이들이 서로에 대한 공감과 배려 속에서 자신의 사적인 욕구를 절제하면서 갈등을 조율하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할 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인성교육은 공동체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고 공감능력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양명철학은 양지론을 통해 양지라는 인간의 도덕성이 공동체에서의 실현되는 것을 강조하였다. 양명이 제시하는 진성측달하는 양지는 개인과 타인의 관계 속에서 간극을 없애고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고 아파하는 진성측달(眞誠惻怛)하는 양지를 실현한 인간을 인성교육적 차원에서 규정하면 공동체 및 대인관계 역량이 충분히 달성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진성측달 하는 양지의 활동 범위는 이웃, 사회, 국가 나아가 자연만물에 까지 확대된다.

양지가 발현된 교육은 결코 개인의 도덕적 완성만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교육이 될 수 없으며, 양지를 확충한 교육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하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진성측달하는 양지의 능력에 기반한 인성교육은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통합에 필요한 공동체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다.

#### 3.1.3 자겸(自慊)에 바탕 한 자기주도역량

학습에 있어 학생이 스스로 흥미와 필요성을 느껴 자율적으로 참여할 때, 교육의 효과는 커진다. 그러나 반대로 학습 내용을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수동적 학습일 경우는 학생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다.[32] 이렇듯 학습자의 자율성은 만족스러운 교육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인성교육에서의 학습자의 자율성은 일반적인 지식교육에서 더욱 중요하다. 왜

32) 강선보, 박외수, 김귀성, 송순재, 정윤경, 김영래, 고미숙, 「21세기 인성교육의 발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연구」, 『교육문제연구』 30집, 고려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2008, 30쪽.

냐하면 자율성이 전제되지 않은 수동적인 인성교육에서는 인성교육에 임하는 학습자의 도덕 주체성의 확립이 훨씬 어려우며, 도덕적 앎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실천성 확보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동적 인성교육은 도덕성의 발현을 통한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학생들에게 보장해 주기 어렵다.

> 옛 사람들이 타인의 선을 자기 일 이상으로 기뻐하고 타인의 악을 자기 일 이상으로 우려하며, 백성의 배고픔을 자기 배고픔처럼 여기며,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획득하지 못하면 자신이 잘못하여 남을 수렁에 빠뜨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그런 짓을 해서 세상 사람들의 신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양지를 실현하여 스스로의 만족(自慊)을 구하려고 노력한 것 뿐이다.[33)]

양명은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또는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양명철학에서 양지를 실현하는 목적은 그저 스스로 만족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양명철학에서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왜 스스로에게 만족함을 보장하가? 그 까닭은 양지실현을 통해 얻어지는 '즐거움(樂)'이 곧 내 마음의 본체이고, 양지 자체가 이 즐거움의 본체이기 때문이다.[34)]

양명철학에서 양지란 내 마음 안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도덕의 법칙과 원리 역시 나의 마음 밖에 있지 않다. 그래서 양명 추구한 심즉리의 공부법은 마음 밖에서 진리를 궁구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이치를 구함으로써 도덕판단의 준칙을 스스로 정립한다. 이러한 심즉리의 공부에 근거하면 학습자는 외부에 설정된 덕목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도덕 주체로서 자율성을 지닌 자기 주도적 존재이다.

양명철학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주도하는 도덕 주체이다. 그러므로 양지가 온전하게 실현되었는가 하는 판단은 타인의 인정이나 외재적인 법칙에 부합하였는가에 있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양명철학에서 양지가 실현되는 일련의 과정은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自慊)'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추구된 것이다. 즉 양지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즐거움'과 관련하여 양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33) 『傳習錄』中, 「答聶文蔚」, 179조목, "良知之在人心, 無間於聖愚, 天下古今之所同也. 世之君子惟務致其良知, 則自能公是非, 同好惡, 視人猶己, 視國猶家, 而以天地萬物爲一體, 求天下無治, 不可得矣. 古之人所以能見善不啻若己出, 見惡不啻若己入, 視民之飢溺猶己之飢溺, 而一夫不獲, 若己推而納諸溝中者, 非故爲是而以蘄天下之信己也, 務致其良知, 求自慊而已矣."

34) 『傳習錄』中, 「答陸原靜書」, 166조목, "樂是心之本體."; 『王陽明全集』 卷5, 「與黃勉之二」, "良知卽是樂之本體."

즐거움은 마음의 본체이다. 비록 칠정 중의 즐거움과 같지는 않지만, 또한 칠정의 즐거움을 벗어나지도 않는다. 비록 성현에게 따로 참된 즐거움이 있지만, 또한 보통 사람도 똑같이 지니고 있다. 다만 보통사람들은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알리지 못하고 도리어 스스로 수많은 근심과 고뇌를 찾으며 미혹과 자아방기를 덧보탠다. 비록 근심과 고뇌 미혹과 자아 방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즐거움은 또한 있지 않은 적이 없다. 한 생각이 환하게 열린 자기 몸에 돌이켜서 성실하면 즐거움이 곧 거기에 있게 된다. 매번 그대와 논의한 것이 이러한 의미가 아닌 것이 없는데도 그대는 오히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물으니, 이것은 여전히 나귀를 타고 나귀를 찾는 폐단을 면하지 못한 것이다.[35]

양명에게 있어서 '즐거움'은 성현들뿐만 아니라 보통사람들도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즐거움은 마음의 본체로서 양지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양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 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래서 양명은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여 진정한 즐거움이 이미 나에게 존재함을 자각하고 다시 진정한 즐거움의 경지에 도달할 것을 주장하였다.

양명철학에서 도덕본성인 양지를 실현하는 것은 도덕 주체인 인간에게 진락(眞樂)의 경지를 보장한다. 그리고 자겸(自慊)은 타자의 요구가 아닌 스스로 양지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도달하는 마음의 경계이며 자겸에 이르는 과정은 자율적이다. 또한 자겸은 행위자 본인만이 느끼는 이기적인 즐거움일 수 없다. 왜냐하면 자겸은 타자와 내가 더불어 느끼는 참된 즐거움으로 그들이 즐거운 것은 곧 내가 즐거운 것이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자율성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 그래야만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행동의 동기를 찾고, 도덕을 실천하는 모든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앎과 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인성교육은 학습 주체인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줄 때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양명철학에서 양지실현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함(自慊)'을 위해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지의 실현을 통해서 자겸의 경지에 이르고자 한 양명의 철학을 인성교육에 활용한다면, 그러한 인성교육은 자기주도역량을 기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5) 『傳習錄』, 「答陸原靜書 二」, 166조목, "樂是心之本體. 雖不同於七情之樂, 而亦不外於七情之樂. 雖則聖賢別有眞樂, 而亦常人之所同有. 但常人有之而不自知, 反自求許多憂苦, 自加迷棄. 雖在憂苦迷棄之中, 而此樂又未嘗不存. 但一念開明, 反身而誠, 則卽此而在矣. 每與原靜論, 無非此意, 而原靜尙有何道可得之問, 是猶未免於騎驢覓驢之蔽也."

### 3.2 양명철학에 바탕 한 대학 핵심역량 함양의 교육방법

대학의 인성교육은 예비사회인으로서 대학생들이 자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올바른 인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36]그리고 대학인성교육의 추진 방향에서 가정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대학교육을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이다. 우리는 앞서 양명철학에 바탕하여 대학이 지향해야 할 인재상을 도덕적·관계적 자아실현을 이룬 인간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상을 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역량들을 양명철학에서 도출하였다. 그것은 보편적 도덕성, 진성측달한 공감능력,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양지의 특성에 바탕 한 인성역량, 공동체 역량, 자기주도 역량이었다. 지금부터는 위 세 역량을 길러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양명의 구체적 교육방법을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 3.2.1 인성역량 함양을 위한 고덕(考德)

「훈몽대의시교독 유백송등(訓蒙大意示教讀劉伯頌等)」[37]은 아동을 교육하는 견해(大意)를 책 읽기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제시하는 일종의 교사 지침서이다.[38] 이 「훈몽대의」는 양명이 교수의 목적을 밝히고 있으므로 오늘날 교육에서 교육의 목적을 밝힌 교육총론이라고 할 수 있다.[39] 양명은 이 「훈몽대의」에서 학교 교육은 덕성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양명은 인간의 본성을 도덕성으로 보고[40],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인간 내부의 정서를 함양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덕성으로서의 인간 본성을 깨달아야 한다[41]고 주장한다. 양명이 덕성 교육을 강조한 바는 양명이 학교 교육에서 덕성교육을 교과과정의 기본으로 삼은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교과과정을 밝힌 「교약(教約)」을 살펴보면 양명은 고덕(考德)을 학교 교육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42] 이 고덕은 매일 수업 일과 중 가장 먼저 이루

36) 박은민,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콘텐츠학회』12(7), 2012, 497-509쪽 참조.
37) 이하부터는 간략하게 「훈몽대의」로 언급.
38) 최재목, 『내 마음이 등불이다』, 이학사, 2003, 183쪽 참조.
39) 이우진, 「왕양명 공부론의 교육학적 해석」,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학위논문, 2011, 327쪽 참조.
40) 『傳習錄』 中, 「答陸原靜書」, 155조목, "良知, 心之本體, 卽所謂性善也, 未發之中也, 寂然不動之體也, 廓然大公也."
41) 『傳習錄』 中, 「訓蒙大意示教讀劉伯頌等」, 195조목, "대저 어린아이의 정서는 놀기를 좋아하고 구속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초목이 처음 싹을 띄울 때 그것을 펼쳐주면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지만, 꺾거나 휘어 버리면 쇠하여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다. 이제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그들의 취향을 고무시켜서 속마음을 즐겁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 그치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大抵童子之情, 樂嬉遊而憚拘檢. 如草木之始萌芽, 舒暢之則條達, 摧撓之則衰痿. 今教童子, 必使其趨向鼓舞, 中心喜悅, 則其進自不能已.)"
42) 『傳習錄』 中, 「教約」, 200조목, "每日工夫, 先考德, 次背書誦書."

어져야 하는 과정으로서 양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교육 방법이었다. 고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일 이른 아침에 학생들이 모여서 인사드리는 예절을 마치면 교사는 차례차례 모든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집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에 게으르거나 소홀함이 없었고, 진실하고 절실하지 하지 않았는가?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면 저녁에 잠자리를 살피고 아침에 문안을 여쭙는 의식을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빠뜨림이 없도록 실천하였는가?”, “길을 오가는데 걷고 달리는 예절에 방탕함이 없고, 삼가고 조심하지 않은 일이 없었던가?” “일체의 언행과 마음가짐이 어떤 거짓이나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였는가?”, “충성스럽고 신뢰하며, 돈독하고 공경스럽지 못한 것이 있었던가?” 모든 아이들은 반드시 각각의 질문에 사실대로 말해야 하며,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힘써 노력해가야 한다. 교사는 다시 그때, 그때 구체적인 일에 나아가 곡진하게 가르쳐서 깨우치고 개발시킨 뒤에 각자 자리로 돌아가 수업에 임해야 한다.[43]

고덕은 덕(德)의 양성이라는 학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방법이다. 양명에게 있어서 덕성의 함양은 나의 마음을 살피는 마음공부로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과의 일대일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매일 살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마음을 성찰하였는지, 본성으로서의 도덕성을 실천하였는지를 살핀다.

> 매일의 공부는 먼저 덕성을 고찰하고, 다음에는 (배운) 글을 외우고 배우지 않은 글을 읊으며, 그다음에는 예의를 익히거나 고시형식의 글을 짓고, 그다음에는 다시 글을 읊고 강론을 하며, 다음으로 시를 노래한다. [44].

고덕에 바탕 한 인성교육의 방법은 외부로부터 도덕성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이미 내재 된 도덕성을 찾는 데서 출발해하는 것을 특히 강조한다. 왜냐하면 고덕의 교육방법은 내 안에 내재 된 도덕성을 성찰하여 나의 도덕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며 도덕성을 살피고 덕의 양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식[45]이기 때문이다.

---

43) 『傳習錄』中, 「敎約」, 196조목, “每日淸晨, 諸生參揖畢, 敎讀以次徧詢諸生. 在家所以愛親敬長之心, 得無懈忽, 未能眞切否? 溫凊定省之儀, 得無虧缺, 未能實踐否? 往來街衢, 步趨禮節, 得無放蕩, 未能謹飭否? 一應言行心術, 得無欺妄非僻, 未能忠信篤敬否? 諸童子務要各以實對, 有則改之, 無則加勉. 敎讀復隨時就事, 曲加誨諭開發, 然後各退就席肄業.”

44) 『傳習錄』中, 「敎約」, 200조목, “每日工夫, 先考德, 次背書誦書, 次習禮, 或作課倣, 次復誦書講書, 次歌詩.”

그래서 양명이 실제 운영한 사학(私學)에서 이 고덕은 매일 아침 학습자의 정신이 가장 맑은 아침에 행해지는 과목이었다. 양명은 교육의 목적인 도덕본성(양지)의 함양을 위해 가장 먼저 고덕(考德)을 통해 효(孝), 제(弟), 충(忠), 신(信) 등의 실천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자신을 반성하는 데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양명이 제시한 이 고덕의 교육방법을 오늘날 대학의 인성교육에 활용한다면 양명이 매일 실시한 고덕은 인성역량을 함양하는 구체적인 교육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고덕은 대학의 인성교육에 있어서 인성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인성교육 방법으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 3.2.2 자기주도 역량 함양을 위한 가시(歌詩)

양명 제시하는 시를 노래하는 '가시(歌詩)' 의 교육방법은 학습자의 정서를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여 도덕 본성인 양지를 드러내고 사욕이 끼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46] 즉 가시는 인간의 도덕적 발달과 동시에 정서적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방법이다.

> 무릇 시를 노래하도록 하는 것은 비단 그 지의(의지)를 드러내게 하는 것 뿐 아니라, 또한 그 뛰고 소리치고 휘파람 부는 것을 노래를 통해 발산하고, 그 답답하게 억눌리고 막혀있는 것을 음절을 통해 펼쳐내게 하는 것이다.[47]

시를 노래하는 가시는 학습자로 하여금 단순히 고상한 정의(情意)를 드러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뜀박질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시에 담아 발산하는 기능을 하여 불쾌한 마음의 감정을 풀어줄 준다. 그러므로 양명이 제시한 가시의 교육방법은 시를 음율에 따라 읽는 정서적 자극을 통해 정서를 순화시키고 도덕적 행동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인성교육 방법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또한, 가시(歌詩)는 즐거운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 무릇 시를 노래할 때는 반드시 용모를 단정히 하고 기운을 안정시켜서 그 발음을 맑고 명랑하게 하며, 그 리듬을 고르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방탕하게 떠

---

45) 이우진, 「왕양명 공부론의 교육학적 해석」,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1, 336쪽 참조.

46) 『傳習錄』中, 「敎約」, 200조목, "예를 익히고 시를 노래하는 일들은 모두 아동의 마음을 항상 보존하여 그들로 하여금 즐겁게 익혀서 싫증나지 않게 하고, 사특하고 편벽한 것에 마음 쓸 겨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凡習禮歌詩之數, 皆所以常存童子之心, 使其樂習不倦, 而無暇及於邪僻.)"

47) 『傳習錄』中, 「訓蒙大意」, 195조목, " 故凡誘之歌詩者, 非但發其志意而已, 亦所以洩其跳號呼嘯於詠歌, 宣其幽抑結滯於音節也."

들지도 말며, 위축되어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오래 지속하면 정신이 후련하고 심기가 화평해진다.[48]

양명은 가시를 통해 학습자가 감정을 발산하고, 긴장을 풀어주어 즐거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양명은 본격적인 지식교육 이전에 학생들의 정서를 질곡하지 않고 학습 분위기를 자유롭게 하는 가시를 강조하였다.

양명이 살았던 당시 공부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의 모습을 띄고 있었고, 양명은 이러한 공부를 변질된 공부로 여겼다.[49] 그래서 양명은 자신이 세운 사학(私學)에서 시를 노래하는 가시의 교육방법을 실제 교육에 적용함으로써 공부의 본질을 다시 세우고자 하였다.[50] 즉, 양명이 가시의 교육방법을 통해 다시 세우고자 한 공부의 모습은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하는 공부였다. 그래서 양명은 가시를 통해 학습자의 감정을 발산하게 하고 긴장감을 풀어준 후에 지식교육에 임하도록 하였다.

양명이 가시와 같은 정서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충동을 조절하고, 또 즐거운 교육환경의 조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인성교육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것은 가시의 교육방법이 대학에서 강조하는 9가지 핵심역량 중 자기주도역량을 기르는 교육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주도역량은 자신을 탐색하고 통제하여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역량으로 자기주도의 대상은 일, 행동, 삶이며,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은 계획, 실천, 협력, 수행, 발휘 등으로 나타난다. [51] 그러므로 국내 대학의 핵심역량인 자기주도역량은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 수립된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과 과정을 자기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C9)”으로 정의할 수 있다.[52]

양명이 제시한 가시(歌詩)는 감정과 충동의 발산을 통해 학습자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교육환경을 즐겁게 환기해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참여를 유도한다. 그러므로 양명이 「훈몽대의」에서 강조한 가시의 교육 방법은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에 앞서서 긴장감 해소와 즐거운

48) 『傳習錄』中, 「教約」, 197조목, “凡歌詩須要整容定氣, 淸朗其聲音, 均審其節調 : 毋躁而急, 毋蕩而囂, 毋餒而懾. 久則精神宣暢, 心氣和平矣.”

49) 『傳習錄』中, 「答羅整菴少宰書」, 176조목, “所謂 以學術殺天下後世也.”

50) 『傳習錄』中, 「訓蒙大意示教讀劉伯頌等」, 195조목, “지금 사람들은 흔히 시를 노래하고 예를 익히는 것을 시무(時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모두 세속(世俗)의 용렬하고 비루한 견해이니, 어찌 옛사람이 가르침을 세운 뜻을 알 수 있겠는가?(今人往往以歌詩習禮爲不切時務, 此皆末俗庸鄙之見, 烏足以知古人立教之意哉?)”

51) 유지은·김현진, 「국내 대학에서 핵심역량의 유형과 의미 탐색: ACE+ 사업 참여대학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4), 2019, 749쪽 참조.

52) 앞 논문, 750 쪽.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스스로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고 지식학습에 대한 주체적 참여 의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가시의 교육방법은 외부적 강요가 아닌 주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 방법으로 이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방법이다. 그리고 가시는 학습자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학습 분위기를 즐겁게 변화시킴으로써 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역량을 함양하는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3.2.3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발본색원(拔本塞源)

대학 핵심역량 중 인성역량이 바람직한 가치관과 도덕적 판단력을 바탕으로 도덕성을 발휘하는 역량이라면, 공동체 역량은 타인을 배려하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53] 국내 대학의 9개 핵심역량에는 공동체의 역량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학의 인성교과는 인성역량과 함께 공동체 역량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도덕성을 키우는 교육인 동시에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양명철학에서 양지는 인간의 도덕본성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또한 진성측달 하는 양지의 특성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여 '사회적 행동'을 주재하고 이로써 공동체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만물에 대해 공감하는 양지가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에서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과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수없이 마주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기주의와 욕심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한다. 양명철학에 근거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웃과의 다툼, 지역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 국가이기주의와 같은 행동들은 도덕성인 양지에 반하는 행동들이며,[54] 진성측달하는 양지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 상태이다.

양지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데 왜 본성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양명은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양명은 인간이란 양지가 있기 때문에 타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본능과 생리적 욕구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로 파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양명철학에서 인간은 천지만물과 자신을 하나로 생각하고 이들과 공감하는 양지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의 한계성으로 인해 때로는 양지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에만 집착하여 경쟁과 다툼을 일삼는다.[55] 이에 양명은 양지실현을 위해 만물과의 공감을 방해하는 사욕의 존재를

53) 앞 논문, 753쪽 참조.

54) 『傳習錄』中, 「答陸原靜書」, 165조목, "若無有物欲牽蔽, 但循著良知發用流行將去, 卽無不是道. 但在常人多爲物欲牽蔽, 不能循得良知."

인정하고 이 사욕을 제거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56]

> 사람마다 각각 제 마음을 갖게 되어 치우치고 사소하고 편벽되고 고루한 견해와 교활하고 음험한 술수가 이루 죄다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현명한 자를 질투하고 능력 있는 자를 시기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은 시비에 공정하다고 여기며, 제 감정과 제 욕구대로 하면서 오히려 자신은 좋아하고 싫어함을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능멸하고 서로 해쳐서 골육을 나눈 일가 친척 조차도 이미 너와 나 사이에 승부를 가르려는 생각과 피차에 울타리를 치는 모습이 없을 수 없는데 하물며 광대한 천하의 수많은 백성과 사물에 대해 도한 한 몸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재앙과 난리가 끊임없이 서로 이어지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57]

사욕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구성원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며 서로 더불어 사는 관계를 잊고 대립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관계를 왜곡시킨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어울리는 삶을 방해하는 사욕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렇다면 양명은 양지의 가리는 사욕 제거의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 풀이 방해가 된다면 마땅히 뽑아내는 것이 이치이므로, 그것을 뽑아낼 뿐이다. 우연히 뽑아내지 못했더라도 역시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다. 만약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을 덧붙인다면 마음의 본체에 누를 끼치게 되고, 기운을 움직이는 곳이 많이 생길 것이다.……단지 그대의 마음에 있을 뿐이다. 따르는 것이 바로 선이고, 기운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악이다.[58]

---

55) 『傳習錄』下, 「黃修易錄」, 244조목, "人孰無根? 良知卽是天植靈根, 自生生不息, 但著了私累, 把此根戕賊蔽塞, 不得發生耳."

56) 『傳習錄』中, 「答聶文蔚」, 180조목, "後世良知之學不明, 天下之人用其私智以相比軋, 是以人各有心, 而偏瑣僻陋之見, 狡僞陰邪之術, 至於不可勝說; 外假仁義之名, 而內以行其自私自利之實, 詭辭以阿俗, 矯行以干譽, 揜人之善而襲以爲己長, 訐人之私而竊以爲己直, 忿以相勝而猶謂之徇義, 險以相傾而猶謂之疾惡, 妬賢忌能而猶自以爲公是非, 恣情縱欲而猶自以爲同好惡, 相陵相賊, 自其一家骨肉之親, 已不能無爾我勝負之意, 彼此藩籬之形, 而況於天下之大, 民物之衆, 又何能一體而視之? 則亦無怪於紛紛籍籍, 而禍亂相尋於無窮矣."

57) 『傳習錄』中, 「答聶文蔚」, 180조목, "是以人各有心, 而偏瑣僻陋之見, 狡僞陰邪之術, 至於不可勝說. …… 妬賢忌能而猶自以爲公是非, 恣情縱欲而猶自以爲同好惡. 相陵相賊, 自其一家骨肉之親, 已不能無爾我勝負之意, 彼此藩籬之形, 而況於天下之大, 民物之衆, 又何能一體而視之? 則亦無怪於紛紛籍籍, 而禍亂相尋於無窮矣."

58) 『傳習錄』上, 「薛侃錄」, 101조목, "草有妨礙, 理亦宜去, 去之而已. 偶未卽去, 亦不累心. 若着了一分意思, 卽心體便有貽累, 便有許多動氣處. …… 只在汝心. 循理便是善, 動氣便是惡."

> 무릇 발본색원론이 세상에 밝혀지지 않는 다면 세상에서 성인이 되기를 배우는 것은 날마다 번잡해지고 날마다 어려워져서 사람이 금수나 오랑캐와 같은 지경에 빠져들어도 오히려 스스로 성인의 학문이라고 여길 것이다.[59)]

양명은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기 위해 발본색원의 공부를 강조하였다. 양명의 공부에는 안과 밖, 존양과 성찰의 차이가 없다. 양명에게 있어 공부는 그저 사욕을 일으키는 근원을 하나하나 찾아내 발본색원하여 마음이 순수한 천리인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일체의 마음작용이 모두 심체의 유행이 된다.[60)]

오늘날에는 개인, 단체, 지역, 국가 등에서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이기주의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기주의의 극심화는 집단, 사회, 국가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결국에는 공멸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을 양성하는 대학의 인성교육에서는 타인과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동체 역량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양명의 사욕 제거를 위한 발본색원의 공부는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인성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 사욕이 움트는 순간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하는[61)] 발본색원은 사욕의 근원을 없애고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삼는 양지의 공감능력을 보존하고 실천하는 공부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명이 제시한 발본색원의 공부는 양지의 올바른 발현을 방해하는 사욕을 자각하고 매순간 발동한 사욕을 완전히 제거해 진성측달하는 양지의 능력을 되살리는 공부법으로서 이는 도덕성과 공감능력을 모두 갖춘 성인을 목표로 하는 공부이다. 그리고 성인은 대학에서 지향하는 인성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갖춘 인재상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사욕을 제거하고 양지를 회복하는 발본색원의 교육방법은 도덕성을 회복하는 공부이면서 또한 학습자의 공동체 역량을 기르는 교육방법으로 대학 인성교육에 활용될만한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59) 『傳習錄』, 142조목, “夫拔本塞源之論不明於天下, 則天下之學聖人者, 將日繁日難, 斯人淪於禽獸夷狄, 而猶自以爲聖人之學.”

60) 한정길, 「王陽明의 마음의 철학에 관한 硏究」,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3쪽.

61) 『傳習錄』下, 「黃直錄」, 226조목, “發動處有不善, 就將這不善的念克到了. 須要徹根徹底, 不使那一念不善潛伏在胸中. 此是我立言宗旨.”

논평

# 「양명학을 활용한 대학 인성교육 개발에 관한 연구」를 읽고

고재석
성균관대학

COVID-19의 Pandemic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 인류는 정치 · 경제 · 교육 및 과학기술 · 기업 경영 · 국제관계 등에 있어 새로운 표준이 요구되는 'New Normal'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미래에 대한 실천적 노력 없이는, 인류의 생존을 넘어 지구의 공멸까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위기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 Post든 After든 다원적인 가치인식과 다각적인 학문영역에서 코로나 이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은 절실하다.

산 정상을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듯, 어느 하나의 길이 유일하고 절대적이라는 편견은 위험하다. 그런 면에서 천지자연을 조화롭게 이루는 것이 인간다움의 이상임을 지적한 동아시아의 철학사상에 기반 한 인간완성을 위한 논의는 서구사회 가치인식에 기반 한 정치 · 경제 등의 거시적인 논의와 달리, 미시적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또 하나의 지혜를 제공할 수 있다.

저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양성의 방향이 도덕성과 관계성을 두루 갖춘 인재로 규정하고, 동양철학 가운데서 인간 양심의 자발적인 힘을 긍정하는 양명철학을 근간으로, 인간의 존엄과 사회의 조화, 참된 행복의 경지를 회복하고 실현하는 인성교육의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글로벌 창의 인재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역량중심의 인성교육을 전제하고, 유형별로 분류한 핵심역량에서 인성역량 · 공동체역량 · 자기주도역량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방향과 실질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논문의 구상에 공감하고 저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세부 내용들이 보완되어, 추후 한국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좋은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 논문을 읽으며 질문하고 싶은 내용과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본다.

첫째, 인성역량에 대한 부분이다. 양명은 인간이면 누구나 선험적으로 도덕 본성인 양지를 지니고 있다고 규정하고, 학습과 경험의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은 바람직한 가치관과 도덕적 판단력을 바탕으로 성숙한 인간성을 함양하여 도덕주체로 자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저자는 '考德'과 같은 성찰을 통해 인성역량 함양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평자도 다년간 대학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타율적인 기준으로 인간다움을 학습하는 것도 필요한 순간이 있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부끄럽지 않은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알 수 있는 힘이 마음에 내재되어 있음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논어』를 보면, 공자의 교육방식을 두고 제자 안연은 차근차근 사람을 잘 이끌어 나아가게 하였다고 술회한다.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선한 마음의 씨앗이 각자의 개성과 수준에 맞게 싹을 틔워 의미 있는 생각과 행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는 말이다. 일방적인 방식으로 알려줘야 할 때도 있겠지만, 역시 초점은 내면의 동의를 이끌어 내어 스스로 자각하고 행하도록 이끄는데 있다. 선한 천성을 이끌어 나아가게 하기 위한 노력은 교육대상을 바라보는 절실한 자세일 수 있다.

다만 인간의 양심 조차 개인의 이기적인 목적성을 위해 드러난 것이라고 여겨지는 현대사회에서, 양명이 제시한 선험적인 도덕 능력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지 고민이다. 도덕적인 삶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편안함은 물론 결과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차선의 설명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考德'을 통해 효제충신에 대한 성찰을 하는 것이 인성역량을 함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하지만, 이는 오히려 공동체역량 함양을 위한 방법에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한다. 평자는 우선적으로 도덕적인 사고와 행위의 토대가 되는 내면의 자율적인 동기를 확인하는 성찰이 인성역량 함양의 첫 번째 방향이어야 되어야 한다고 본다. 명상이든 산책이든 혼잡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을 살피는 노력은 양명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 마음은 생각과 행동의 동력이다. 과거의 잘못된 기억, 미래의 막연한 추측이 앞서면, 지금 여기를 제대로 볼 수 없다. 편견과 예단을 내려놓고 지금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혼잡한 마음을 거두어들여 마음의 무게를 덜어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마주하는 대상의 의미가 나에게 온전히 다가온다. 그리고는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 부터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마음의 선한 씨앗은 즉각적이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므로, 반복적으로 체화시켜 자기도 모르게 바른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는 것이 공동체 함양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력이 내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것인지 외부의 타율적인 기준에 의거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고덕'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공동체 역량에 대한 부분이다. 저자는 양지가 발현된 교육이 개인의 도덕 완성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실현되어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규정한다. 진성측달하는 양지의 능력에 기반한 인성교육은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통합에 필요한 공동체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대안으로 '발본색원'을 제시한다. 사욕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구성원 간에 갈등을 조장하여 관계를 왜곡 시키므로,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자는 공동체역량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관계처럼 남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인간다움의 본질이므로, 타인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아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길러주는 역량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만물일체는 양지의 본체이므로,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 역시 공동체역량에 속할 수 있다.

또한 공동제역량 함양을 위해 저자가 제시한 '발본색원'의 방식은 오히려 인성역량 함양 방법에 속할 수 있고, '고덕'의 방식이 공동체 함양을 위한 방법에 적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공동체역량의 함양은 가족과 하나되는 齊家역량 · 사회로 나아가는 治國역량 · 세상에 공감하는 平天下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유학은 공동체역량의 함양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덕적 경지가 낮은 일반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을 쉽게 확신할 수 있는 공간이 가족이므로, 부모자식 사이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감정을 실천하고 점차 주변으로 확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의 실천은 부모자식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공감의 감정을 토대로 나와 남, 나와 사회, 나와 세상, 나와 천지자연을 일체로 인식하고 상대의 존재를 존중하는데 있다. 수신을 통해 공감의 마음을 확립하여 '나'를 세우고, 그 마음을 따라 남에게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여 가족과 이웃, 사회, 세계, 자연으로 확대해야, 수신역량 · 제가역량 · 치인역량 · 평천하역량이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인간다움의 이상이 완성될 수 있다.

셋째, 자기주도역량 부분이다. 저자는 양지실현이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함을 위해 실현하는 것이므로, 양지 실현을 통해 학습 주체인 학생이 스스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주도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감정을 발산하고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가시'의 방법을 제시한다. 시를 노래하는 것은 긴장감 해소와 즐거운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스스로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고 지식학습에 대한 주체적 참여의지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평자는 자기주도역량에서 제시한 '가시'와 같은 방법이 소리 내어 고전을 읽는 '성독'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고전의 가치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고전 100권을 외워야 졸업할 수 있다는 '위대한 고전(The great books)' 프로그램을 도입한 시카고대학은 20세기 중반이후 노벨상을 다수 배출하는 명문대학으로 도약하였다. 고전읽기를 통해 비판적 독서와 반성적 사고를 독려하여 학생들을 계몽하고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자유교육의 이상을 실현한 것이다. 조선시기 선현들도 인간다움의 완성을 위해 고전 읽기를 통한 이치탐구의 독서공부를 강조하였다. 『논어』에서도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 하여, 새로운 지식의 창조가 고전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진다고 말하였다.

성현의 지혜가 담긴 고전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기운도 평화롭게 된다. 변화는 더디지만, 매일 먹는 한 끼 밥이 시나브로 몸을 윤택하게 하듯, 고전읽기는 삶의 순간마다 나를 지탱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좋은 스승이자 벗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전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는 요령이 있다.

하나, 많이 읽어 입에 올려야 한다. 한두 번 훑어보고 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많이 읽으려 욕심낼 필요도 없고, 빨리 읽으려 조급할 이유도 없다. 음과 뜻을 분명하게 파악하면, 한 번에 몇 줄을 읽을지 몇 번을 읽을지 정해 놓고,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읽어야 한다. 너무 큰 소리로 읽을 필요는 없다. 자기 숨에 맞게 음과 뜻을 새기면서 또박또박 읽어야 한다. 선현들은 평생 고전을 삼천 번 혹은 만 번을 소리 내어 읽어가며 익숙하게 하였다고 한다. 둘,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고전을 입에 올리면서 의문이 생기면 지나치지 말고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성급히 의문을 해결할 필요는 없다. 되풀이해서 읽고, 손으로도 써보면 도움이 된다. 손이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가서, 의미가 명확해질 수 있다. 익숙하게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고전의 현재적인 의미를 자기 삶에 비추어 보아 스스로 체득해야 한다. 셋, 몸소 실천해야 한다. 아는 것이 머리에만 맴돌면 바쁜 일상에 몰입하다 어느새 망각하기 쉽다. 생각에 서부터 옳음을 명확히 분별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독실하게 실천하면, 어느 순간 고전의 지혜가 마치 내입에서 나온 것처럼 나와 하나가 되어, 고전과 내가 모두 새롭게 의미를 지니게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부분에 대한 생각이다. 저자는 양명의 공동체역량 부분을 설명하며, "관계 지향적 욕구를 끊어버리고 개인적 차원의 깨달음만을 재향하는 *老佛*"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노장사상과 불교사상의 근본적인 폐단이 아니라, 양명 생존 당시 사회에서 유행하던 노불의 폐단을 양명이 지적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불 역시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공존이 이상적인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주석이 추가 되면 좋을 듯하다. 또한 '진성측달' 등의 용어가 다소 원전을 그대로 사용하여, 인성교육 담당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주면

좋을 듯하다.

저자의 의도대로, 양명의 인성교육에 대한 지혜와 방법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인성함양에 길잡이가 되어 자기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삶을 가꿔가기를 희망한다. 저자의 대안으로 인해, 모두 환하고 밝은 마음, 맑고 바른 마음이 바로서서, 크게 하나 되는 살림의 행위가 나로부터 시작되어, 천지만물이 각자 자기자리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상을 기대해본다.

발표 3

# 한국에서의 중국양명학파 연구 현황과 과제

김세정
충남대

## I. 들어가는 말

양명학은 조선시대에 사문난적과 이단으로 배척을 받았으며, 근대에 이르러서도 한국에서의 양명학에 관한 연구는 불모지와 같았다. 혹독한 시련과 무관심의 기나긴 세월을 지나 1980년대 이르러서야 비로소 양명학에 대한 현대적 연구의 단초가 열리기 시작한다. 그로부터 40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한국에서의 양명학 연구는 양적 ·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미국·중국·대만·일본 등 해외에서 양명학을 연구하고 돌아온 유학파는 물론 국내에서도 수많은 양명학 연구자들이 자생적으로 배출되었다. 1995년에는 한국양명학회가 창립되었다. 수많은 양명학 관련 저서와 번역서를 비롯하여 양명학 관련 석·박사학위논문과 학술논문들이 탄생하였다. 왕양명에서부터 중국양명학파는 물론 한국양명학과 일본양명학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소개되고 연구되었다.[1)]

필자가 작성한 지난 60여년간 한국에서 간행된 중국양명학파 연구와 관련된 단행본과 번역서와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및 일반논문 정리한 목록에 근거할 때, 한국에서의 중국양명학파 관련 연구 성과물은 1) 저서 17종 2) 원전 번역서 16종 27권[2)] 3) 외국문헌 번역서 13종 4) 박사학위논문 45편 5) 석사학위논문 99편, 6) 일반연구논문 413편, 총합 603종에 달한다. 양적인 면에서 왕양명에 관한 연구 성과와 대략 비슷하다. 다만 왕양명에 관한 연구는 왕양명 한 개인에 대한 연구 성과인 반면 중국양명학파에 관한 연구의 경우는 황종희(黃宗羲)의 『명유학안(明儒學案)』에 소개된 양명후학만 하더라도 83명에 달한다고 할 때, 분명 양

1) 국내에서의 왕양명 관련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현대 한국에서의 양명학 연구의 신지평」(『陽明學』 54호, 한국양명학회, 2019.9)이란 논문으로, 한국양명학 일반에 관한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양명학에 관한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조선시대 양명학 일반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儒學硏究』 52집, 충남대 유학연구소, 2020.8)란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2) 『잠서』 상권과 하권, 『분서焚書』 I 과 II, 『역주 원중랑집』 10권으로 구성됨.

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실제 연구된 인물도 약 20여명에 불과하며,3) 그 가운데서도 연구물은 몇 학자에 편중되어 있다.4)

표 1. 왕양명 및 중국양명학파 관련 연구 문헌 유형별 통계표

| | 저서 | 원전번역서 | 외국문헌 번역서 | 박사학위논문 | 석사학위논문 | 학술논문 | 총계 |
|---|---|---|---|---|---|---|---|
| 왕양명 | 24 | 14 | 16 | 49 | 85 | 487 | 675 |
| 중국양명학파 | 17 | 16 | 13 | 45 | 99 | 413 | 603 |

표 2. 연대별 중국양명학파 관련 연구 문헌 유형별 통계표5)

| 년대 \ 유형 | 저서 | 원전번역서 | 외국문헌 번역서 | 박사학위논문 | 석사학위논문 | 학술논문 | 총계 |
|---|---|---|---|---|---|---|---|
| 1970년대 이전 | 0 | 0 | 0 | 0 | 0 | 3 | 3 |
| 1970년대 | 0 | 2 | 0 | 0 | 3 | 3 | 8 |
| 1980년대 | 0 | 0 | 0 | 4 | 16 | 34 | 54 |
| 1990년대 | 3 | 3 | 6 | 14 | 28 | 86 | 140 |
| 2000년대 | 9 | 86) | 5 | 12 | 29 | 149 | 212 |
| 2010년대 | 5 | 3 | 2 | 15 | 23 | 138 | 186 |
| 총계 | 17 | 16 | 13 | 45 | 99 | 413 | 603 |

비록 중국양명학파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다소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지만, 중국양명학파 전체를 조망하기에는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중국양명학파에 대한 연구는 양명학파의 분화 원인과 전개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한국양명학 연구에 있어서도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7)

필자는 중국학계에서의 양명후학, 즉 중국양명학파에 관한 연구 경향을 분석하여 2편의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8) 선병삼 또한 중국에서의 양명학파 연구 현황에 대해 분석·발표

3) 강우학파의 섭표, 추수익, 구양덕, 나홍선, 진명수, 절중학파의 전덕홍, 왕기, 주여등, 태주학파의 왕간, 나여방, 하심은, 이지, 초횡, 안균, 왕동, 왕일암, 명말청초의 서위, 원굉도, 유종주, 주약극, 황종희
4) 박사논문의 경우 총 48편 가운데 이지(7편), 서위(6편), 원굉도(7편), 주약극(6편)에 관한 논문이 주를 이룬다. 학술논문의 경우에도 총 412편 가운데 왕기(22편), 왕간(17편), 이지(102편), 원굉도(54편), 유종주(36편), 주약극(21편), 황종희(45편)에 관한 논문이 297편으로 70%를 차지한다.
5) 본 통계표는[부록: 한국에서의 중국양명학파 연구 문헌 목록]에 수록된 자료를 분류한 통계 자료임.
6) 4종 27권,『잠서』상권과 하권,『분서焚書』Ⅰ과 Ⅱ,『역주 원중랑집』10권으로 구성됨.
7)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지, 공안파, 황종희의 경우에는 조선유학과의 관련성을 다룬 논문과 비교연구논문이 다소 있다.
8) 김세정,「중국의 양명학파 연구 경향에 대한 분석과 비판」,『陽明學』22집, 한국양명학회, 2009,「현대 중국에서의 양명학파 연구 현황과 과제」,『陽明學』23집, 한국양명학회, 2009.

한 바 있다.[9] 반면 국내에서의 그 동안의 중국양명학파와 관련한 방대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중국양명학파에 관한 연구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분석과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0] 아울러 국내에서의 중국양명학파 연구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중국양명학파 연구의 새로운 도약과 현대적 적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한국에서의 중국양명학파 연구에 대한 연구 목록'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1960년대부터[11] 2019년도까지 60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중국양명학파 관련 연구 성과물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12] <한국에서의 중국양명학파 관련 연구 문헌 목록>을 만들어 부록으로 수록하였다.[13] 그리고 이 목록에 수록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의 중국양명학파 연구 경향에 대해 유형별-1) 저서 2) 번역서 3) 박사학위논문 4) 학술논문-로 나누어서 연구 성과를 정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중국양명학파 연구의 지형도를 그리고, 중국양명학파 연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II. 저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먼저 저서와 관련한 분석과 평가이다. 중국양명학파와 관련하여 총 17종의 저서가 간행되었다. 크게 총론격인 중국양명학파 형성과 전개에 관한 부분과 각론격인 개별 인물과 사상에 관한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9) 선병삼, 「중국에서의 양명학파 연구 현황 고찰 : 근대이전부터 현대까지」, 『東洋古典研究』 58, 동양고전학회, 2015.

10) 2005년도에 황갑연이 「중국 양명학파 연구의 현주소와 전망」(『儒學研究』 12집, 충남대 유학연구소)이란 주제의 글을 발표하였으나, 분석 대상은 2003년도까지의 연구 성과에 한정되어 있고, 연구 성과의 현황을 시론적 차원에서 개괄적으로만 다루고 있어서 중국양명학파 연구의 현황과 특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아울러 연구 성과에 대한 목록이나 서지 정보 없이 인물별·주제별 연구에 대한 수치만을 언급하고 있다.

11) 중국양명학파 관련 최초의 연구물은 1969년도에 이지를 다룬 고병익의 「유교의 이단자 李卓吾」(『아시아의 歷史像』, 서울대출판부)와 이지와 서위를 다룬 차상원의 「明人諸派의 文學理論과 批判(其二)」(『論文集』 15, 서울대학교)가 있다.

12) 해외에서 발표된 국내 학자의 연구 성과물도 포함하였다.

13) 2012년 8월까지의 연구 성과 목록을 『양명학파 전덕홍의 양지철학』(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3)에 부록으로 수록한 바 있다. 이번 목록에서는 이때 누락되었던 연구 성과물을 보충하고 2012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새로운 연구 성과물을 추가로 수록하였다.

## 1. 총론 – 중국양명학파 형성과 전개

중국양명학파의 형성과 전개를 다루고 있는 저서로는 권중달 외의『明末 淸初社會의 照明』(한울아카데미, 1990)과 배영동의『明末淸初思想』(민음사, 1992)을 비롯하여 조영록의『中國 近世 知性의 理念과 運動』(지식산업사, 2002)과 김덕균의『명말 청초 사회사상』(한국학술정보(주), 2007)과 김세정의『양명학파 전덕홍의 양지철학』(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3)이 있다.

먼저『明末 淸初社會의 照明』은 총 6편의 글이 실려 있는데, 이 가운데 권중달의「明末·淸初의 經世思想」에서 양명학파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陽明學의 氣學化'와 '黃宗羲의 경세사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중국양명학파 전반을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편의 논문 성격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반면 조영록의『中國 近世 知性의 理念과 運動』에서는 양명학의 전개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주로 양명학 좌파(태주학파)의 강학운동과 사우론 및 명교반도(名敎叛徒)의 사상경향과 황종희의 반전제적(反專制的) 정치사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절중학파나 강우학파에 대한 논의가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리고 김덕균의『명말 청초 사회사상』은 제목과 달리 2장 '명말청초 사회경제적 상황과 양명학의 성립과 전개' 가운데 일부에서만 양명학파에 대해 소략하게 다루고 있을 뿐[14] 실제로는 당견의『잠서』에 나타난 근대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에서 중국양명학파를 총체적으로 조망한 최초의 저서는 1992년에 간행된 배영동의『明末淸初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총 4장 14절로 구성된 본서는 4개의 절에서 양명학의 분열과 전개 과정은 물론 양명학파의 주요인물과 핵심사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는 명말(明末)의 지식인들의 심학(心學)에는 절실한 시대의식과 경세의식이 깔려있으며, 명말의 심학은 시대의 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본서에서는 개개 심학자들의 사상을 역사사회의 변화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해하려고 했고 또 역사사회의 변화나 문제를 개개사상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려고 했다."고 하여 역사학의 관점에서 본서를 저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15] 이를 토대로 1장 3절에서는 양명학파를 좌파(현성파), 우파(귀적파), 중도파(수증파)로 나누어서 세 학파의 분열과 형성, 전개 과정을 다루고 주요한 인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다.[16] 심학의 주요 논쟁점인 本體工夫論, 無善無惡論, 當下卽是論, 格物論, 童心說, 人心·誠意·愼獨論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양명좌파와 유종주와 황종희의 사상적 특성을 설

14) 2장 2, (1) 양명학의 좌우파논전 (2) 명말청초 양명학의 특징
15) 배영동,『明末淸初思想』, 민음사, 1992, 6~7쪽 참조.
16) 1장 3절 '陽明學의 분열과 전개 1. 陽明學의 분열 2. 現成派(左派)의 사상 3. 歸寂派(右派)의 사상 4. 修證派(中途派)의 사상 참조.

명해 나가고 있다.[17] 본서는 역사학과 사상사적 관점에서 중국양명학파의 형성과 전개는 물론 사상적 특성을 총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의 중국양명학파 연구의 초석을 닦아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지 못하고 대표적인 인물만을 다룬 아쉬움이 남는다.

가장 최근의 저서로는 2013년에 간행된 김세정의 『양명학파 전덕홍의 양지철학』이 있다. 필자는 "중국양명학파에 대한 연구는 양명후학의 분화 원인과 전개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한국양명학 연구에 있어서도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18]라고 전제하면서, 1장 '중국양명학파의 분화와 특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중국 · 대만 · 일본 등에서의 중국양명학파에 대한 연구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중국양명학파의 분화 원인과 전개 과정을 포함한 중국양명학파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그리고 2장 '사구논변과 양명 사구교의 함의'에서는 사구논변을 중심으로 중국양명학파 분화 원인과 특성을 밝히고 있으며, 3장부터 5장까지는 양명후학의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하나인 전덕홍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양명학을 어떻게 계승·발전시켰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중국양명학파 연구 경향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전덕홍에 관한 저서인 관계로 다른 양명학자의 사상을 접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중국양명학파를 총체적으로 다룬 이러한 저서들은 중국양명학의 다양한 학파로의 분기의 역사적 · 사회적 배경과 각 학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방대한 중국양명학파를 한 권의 저서에 담아내는 과정에서 구체성과 엄밀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필자의 관점이나 관심사에 따라 특정학파나 특정인물에 편중된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개별적인 학파나 인물에 대한 설명이 소략하여 개별학파나 인물에 대한 별도의 심도 있는 저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중국양명학파의 다양한 학파와 인물들에 대한 각론적인 연구가 충분히 진행된 이후에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중국양명학파를 개관하는 저술이 나올 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된다.

### 2. 각론 – 개별 인물의 사상에 관한 저서

다음은 각론 즉, 중국양명학파 개별 인물의 생애와 사상을 다룬 저술이다. 황종희의 『명유

17) 2장 1절 '陽明學 左派思想', 3절 '劉宗周의 사상', 3장 2절 '黃宗羲의 사상' 참조.
18) 김세정, 『양명학파 전덕홍의 양지철학』,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머리말.

학안』에 수록된 중국양명학파 인물만 하더라도 총 8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저서로 다루어진 인물은 절중학파의 전덕홍(錢德洪, 호는 緖山, 1494~1578)과 왕기(王畿, 호는 龍溪, 1498~1583)뿐이다. 먼저 김세정의 『양명학파 전덕홍의 양지철학』(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3)은 ‘전덕홍의 비판의식과 실천정신’, ‘전덕홍의 역동적 양지본체론’, ‘전덕홍의 실천적 치양지 공부론’을 담고 있는 바, 전덕홍 사상을 총체적으로 심도 있게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이주행의 『무위 유학: 왕기의 양명학』(소나무, 2005)에서는 유학을 당위 유학과 무위 유학으로 나누면서 “왕기는 전통화된 성선설 체계의 당위 유학과 명교화에 비판적 입장을 제기했고, 왕수인의 치양지설과 사구교를 모태로 무선무악설에 의거한 돈오의 무위 유학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하면서,[19] 왕기의 무위 유학의 연원과 체계 및 특성을 면밀하게 밝혀주고 있다. 반면 선병삼은 『양명학의 새로운 발견: 왕용계 철학 연구』(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에서 왕기의 철학을 ‘사구교법’, ‘양지 본체론’, ‘치양지 공부론’, ‘삼교회통의 양지철학’으로 나누어 상세히 다루면서, 왕기는 유에 편향된 유학의 병폐와 무에 편향된 노불의 병폐를 극복하고 유무상즉상생(有無相卽相生)하는 동정일관(動靜一貫)의 삼교회통의 양지철학을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있다.[20] 아쉽게도 강우학파 인물과[21] 관련된 저술은 없다.

태주학파 가운데는 이지(李贄, 호는 卓吾, 1527~1602)와 관련된 저서가 2종이 있다. 이지 관련 논문으로 독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신용철은 『공자의 천하, 중국을 뒤흔든 자유인, 이탁오』(지식산업사, 2006)와 『이탁오와 조선의 실학』(탐구당, 2017)를 저술하였다. 전자는 ‘1장 나는 한 마리 개였다’, ‘2장 내 책을 태워버려라’, ‘3장 천만세의 시비를 모두 뒤엎어라’, ‘4장 죽음으로 삶을 완성하다’라는 목차에서 알 수 있듯 이지평전에 가까운 저서로 이지의 삶과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지의 비판적 사상(성인과 유교의 이단, 반역자와 반도, 자유와 해방의 사상가)의 형성 과정과 특성을 세심하게 밝혀주고 있다. 후자는 전자의 후속 작품으로 20세기 중국에서의 이지 연구를 소개하고, 현대 중국에서의 이지의 발자취를 찾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이지의 사상이 조선의 실학 등에 미친 영향과 현대 한국 언론 속의 비친 이지를 소개함으로써 과거의 이지가 아닌 현재, 특히 현재 한국과 밀접한 이지로 새롭게 그려내고 있다.

인물과 관련된 저서의 경우 명말청초의 인물들에 대한 비중이 높다. 특히 문학과 예술 방면으로 서위(徐渭, 1521~1593)와 관련 권응상의 『서위(徐渭) 희곡 연구』(연극과인간, 2000), 『徐渭의 삶과 詩文論』(중문, 2005), 이주현의 『서위와 부정의 예술』(명문당, 2016)이 있으며,

---

19) 이주행의 『무위 유학: 왕기의 양명학』, 소나무, 2005, 19쪽 참조.
20) 선병삼, 『양명학의 새로운 발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 246쪽 참조.
21) 강우학파 인물로는 섭표, 추수익, 구양덕, 나홍선 등이 있다.

원굉도(袁宏道, 호는 中郎, 1568~1610)와 관련 이기면의 『원굉도 문학사상』(한국학술정보, 2007)이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저서로는 『원굉도 문학사상』이 있는 데, 여기서는 원굉도가 주장한 '성령(性靈)'의 사상적·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3장과 4장에서 도덕적 주체를 대신한 미학적 주체인 '자아의 확립'과 '확립된 자아'의 영명(靈明)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성령사상(性靈思想)'을 살펴봄으로써 경직성과 획일성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고찰하고, 그 결과 원굉도의 성령사상은 획일적인 사고와 표현을 요구하는 중세적 분위기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도출된 사상이었다는 결론 맺고 있다.22) 그리고 허균을 위시하여 박지원, 이덕무, 이언진 등의 반의고주의(反擬古主義)가 원굉도를 비롯한 공안파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 바,23) 원굉도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 후기 문학 연구에 있어서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본다.

명말청초 사상분야에서는 황종희(黃宗羲, 호는 梨洲, 1610~1695)를 다룬 저서로는 이규성의 『내재의 철학 황종희』(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강중기의 『황종희의 『명이대방록』』(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5), 김덕균의 『새 시대를 꿈꾸며 황종희의 명이대방록』(삼성출판사, 2006), 이혜경의 『황종희가 꿈꾸는 도덕정치: 연대와 성장의 민주주의』(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가 있다. 황종희 관련 최초의 저서인 『내재의 철학 황종희』는 황종희의 철학을 '내재주의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있다. 황종희의 형이상학에서 주요한 범주들을 본질(性)로서의 생성의 힘(生意)으로부터 시작하여, 본체로서의 기(氣)와 마음(心)의 문제 및 자유와 의지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본질의 내재성과 기의 물질대사의 생산체계로서의 세계관이 적극적 의의를 가진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24) 그리고 『황종희의 「명이대방록」』은 황종희의 주요저작인 『명이대방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소개를 통해 황종희 철학사상의 체계와 특징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25) 그리고 가장 최근의 저작인 『황종희가 꿈꾸는 도덕정치: 연대와 성장의 민주주의』는 황종희를 과거가 아닌 현재로 소환하고 있다. 필자는 "황종희보다 더 민주의 정신이 투철한 민주주의 인사도 없을 것이다."라고 전제하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연관 지어 황종희의 사상을 연대와 도덕적 성장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우리가 황종희로부터 현실적인 민주주의의 실천방식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비록 황종희와 관련한 저술은 4종에 불과하지만, 황종희 사상의 전모를 드러내 주었을 뿐만 아

22) 이기면, 『원굉도 문학사상』, 한국학술정보, 2007, 253~254쪽 참조.
23)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후기 한문학』, 소명출판, 2007, 9~11쪽 참조.
24) 이규성의 『내재의 철학 황종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322쪽 참조.
25) 참고로 '제1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1. 황종희의 생애 및 저작 2. 『명이대방록』 해제, '제3부 『명이대방록』 내용 분석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니라 현대적 의미와 활용 가능성까지도 다루어주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견(唐甄, 호는 圃亭, 1630~1704)과 관련한 저서로 김덕균의『명말 청초 사회사상』(한국학술정보, 2007) 1종이 있는 바, 여기서는 당견의『잠서』에 나타난 근대성을 검토하고 있다. 당견은 명말청초 전환기에 중위방본(衆爲邦本)의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부패한 정치권력을 비판하고 부민(富民)의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시대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실천적으로 노력했다고 하는 점을 밝히고 있다.26) 본서는 당견의 근대성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양명학과 근대의 접점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중국양명학파의 개별 인물들의 생애와 사상에 관련한 저서들은 중국양명학파와 관련한 연구 환경이 매우 척박한 한국에서 중국양명학파 연구를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점에서 학술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절중학파와 태주학파에 대한 저서가 있는 반면 강우학파에 대한 저서가 단 한 권도 없는 것은 학술적 균형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아울러 역사적 사상적으로 이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지에 대한 전문학술서가 적다는 점 또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27)

## Ⅲ. 번역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

중국양명학파와 관련한 번역서는 총 28종이 간행되었다. 크게 원전 번역서(16종 27권)와 외국문헌 번역서(12종),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 1. 원전 번역서에 대한 분석

황종희는『명유학안』에서 양명학파를 지역적인 구획에 따라 7개 학파로 나누고 83인을 소개하였다.28) 중국에서는 이들과 관련한 문집들이 간행되고 있다.29) 중국양명학파의 원전

26) 본서는 3장 '당견의 양명학적 세계관의 전개와 변용', 4장 '당견의 전통 윤리관 비판과 남녀평등의식', 5장 '당견의 사회의식에 나타난 이상사회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27) 참고로 이지와 관련하여 원전 번역서 5종, 외국문헌 번역서 1종, 박사학위논문 7편, 석사학위논문 21편, 학술논문 102편이 있다.

28) 浙中王門學派로는 徐愛, 王畿, 錢德洪, 季本 등 18인이 소개되고, 江右王門學派로는 鄒守益, 歐陽德, 聶豹, 羅洪先, 劉邦采, 何廷仁, 陳九川, 王時槐 등 27인이 소개되고, 南中王門學派로는 黃省曾, 朱得之, 徐階 등 9인이 소개되고, 楚中王門學派로는 蔣信과 冀元亨 2인이 소개되고, 北方王門學派로는 孟秋와 南大吉 등 7인이 소개되고, 粵閩王門學派로는 薛侃과 周垣 2인이 소개되고, 마지막으로 泰州學派로는 王艮, 王襞, 王棟, 羅汝芳, 耿定向, 焦竑, 周汝登, 陶望齡 등 18인이 소개되고 있다.

29) 참고로 중국 鳳凰出版社에서는 2007년에 '陽明後學文獻叢書' 8권을 간행한 바 있다.『徐愛·錢德洪·董澐集』,『鄒

을 한글로 번역한 번역서는 총 27종이 있으나, 이 가운데 『명유학안』에 나오는 인물들의 문집 번역서는 단 한 종도 없다. 27종 모두 명말청초의 인물들의 문집에 해당한다. 이지의 문집을 비롯하여 주약극, 황종희, 당견, 원굉도의 문집이 번역되었다.

우선 이지의 문집 번역서가 6종으로 제일 많다. 2000년 중국 사회과학문헌출판사(社會科學文獻出版社)에서 『李贄文集』(전 7권)을 간행 하였는 바, 친구들과의 편지글 모음인 『焚書』와 『續焚書』, 역사 비평서인 『藏書』, 경학 저술인 『道古錄』과 『九正易因』, 『四書評』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도고록』이 윤남한에 의해 『李贄 道古錄 외』(微文出版社, 1972)로 처음 번역되었다. 그리고 이지의 대표적 저서인 『焚書』는 홍승직에 의해 1998년에 처음 번역 되었다.[30] 『분서』 번역의 초석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으나 원문 없이 번역문만 실려 있고 완역이 아닌 선역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 아쉬움은 6년 뒤 김혜경에 의해 『분서Ⅰ』과 『분서Ⅱ』 두 권으로 번역 되면서 해결된다.[31] 1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번역서로 상세한 각주를 달은 번역문은 물론 원문과 이지 연보를 함께 수록함으로써 이지 연구를 위한 기틀을 확고하게 마련해 주었다. 김혜경은 2007년도에는 『속분서』를 번역하였다.[32] 경학 저술과 관련해서는 2009년에 이영호가 이지의 『四書評』 가운데 『논어』와 관련된 부분을 번역하였으며,[33] 2016년에는 김혜경이 이지가 벗들과의 대화 형식을 빌려 『대학』과 『중용』의 요지를 해설한 책인 『道古錄』을 번역하였다.[34] 이러한 이지에 대한 다양한 번역서는 그 만큼 국내에서 이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아울러 이러한 다종의 번역서는 이지 사상의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이지 연구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황종희의 문집에 대한 번역서는 5종이 있다. 다만 이 5종 가운데 4종이 『明夷待訪錄』에 대한 번역서이고,[35] 이 외에 이혜경이 주해한 『맹자사설』이 있다.[36] 한 종에 대한 다양한 번역도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황종희의 다양한 저술에 대한 보다 폭넓은 번역서가 나와야 황종희 사상의 전모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혜경의 『맹자사설』 번역서는 의

---

守益集』(上下册), 『歐陽德集』, 『王畿集』, 『羅洪先集』(上下册), 『羅汝芳集』

30) 이지 지음, 홍승직 옮김, 『분서』, 홍익출판사, 1998.

31) 이지 지음, 김혜경 옮김, 『분서Ⅰ』(559쪽), 『분서Ⅱ』(672쪽), 한길사, 2004.

32) 이지 지음, 김혜경 옮김, 『속 분서』, 한길사, 2007.

33) 이탁오 지음, 이영호 역주, 『이탁오: 이탁오의 논어평』, 성균관대출판부, 2009.

34) 이지 지음, 김혜경 옮김, 『명등도고록』, 한길사, 2016.

35) 유남상이 번역한 『明夷待訪錄 외』(微文出版社, 1972), 최병철이 번역한 『명이대방록』(홍익출판사, 1999), 김덕균이 번역한 『명이대방록明夷待訪錄』(한길사, 2000), 강판권이 번역한 『명이대방록』(계명대출판부, 2010)

36) 황종희 지음, 이혜경 주해, 『맹자사설』, 한길사, 2011.

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37]

그 외에 당견(唐甄, 1630~1704, 호는 圃亭)의 저서를 김덕균이 번역한 『잠서』 상·하권과[38] 주약극(朱若極, 1603~1707)의 저서를 김용옥이 의역한 『石濤畵論』과[39] 원굉도(袁宏道, 1568~1610, 호는 中郎)의 문집을 심경호 등이 번역한 『역주 원중랑집』 10권이 있다.[40] 이러한 번역은 이지와 황종희에 집중된 번역 대상을 다양화함으로써 중국양명학파 연구의 지평을 넓혀주었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역주 원중랑집』은 원굉도의 전집을 완역했다고 하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특히 원굉도는 조선후기 문학 형성에 큰 영향을 준 인물로써 본 번역서는 단지 중국양명학파에 대한 연구를 넘어 조선후기 문학과 사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양명학파의 방대한 인물과 문집에 비해 번역서 자체가 매우 적고, 그 마저도 이지와 황종희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양명학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중국양명학파의 문집에 대한 번역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2. 외국문헌 번역서에 대한 분석

중국양명학파 관련 외국문헌에 대한 번역서는 13종이 있다. 크게 중국양명학파 전반을 다룬 총론에 해당하는 번역서와 개별 인물을 다룬 각론에 해당하는 번역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전자의 경우에는 송하경과 김형찬이 각각 번역 출판한 楊國榮의 『陽明學通論』을[41] 비롯하여 이진표가 번역한 Carsun, Chang의 『신유학사상의 전개(Ⅱ)』(형설출판사, 1997),[42] 안재호가 번역한 陳來의 『송명 성리학』(예문서원, 1997),[43] 김병화·이혜경이 번역한 구스모토 마사쓰구의 『송명유학사상사』(예문서원, 2005),[44] 이영호 등이 공역한 혜문보의 『유교의 이단자들』(성균관대출판부, 2015),[45] 김승일·김창희가 번역한 장쉬예즈(張學智)의 『명대철

37) 참고로 중국에서는 浙江古籍出版社에서 1985년에 校點本 『黃宗羲全集』 12冊권을 간행한 바 있다.
38) 당견 저, 김덕균 역, 『잠서(상)(하)』, 소명출판, 2003.
39) 石濤 저, 김용옥 역, 『石濤畵論』, 통나무, 1992
40) 심경호·박용만·유동환 역주, 『역주 원중랑집』, 소명출판, 2004.
41) 송하경 역의 『陽明學通論』(박영사, 1994)과 김형찬 역의 『양명학-왕양명에서 웅십력까지』(예문서원, 1994) 2개의 번역본이 있다.
42) 총 18개 장으로 구성, 4장 ‘왕수인학파내의 갈등’, 5장 ‘왕학의 몰락…’, 6장 ‘동림학파 유종주의 …’, 10장 ‘왕수인학파의 수정주의자 황종희’를 다룸
43) 총 29개 장 가운데 4개 장(6. 왕기, 7. 왕간, 8. 나여방, 9. 유종주)에서 양명학파를 다루고 있음
44) 2부 명대의 유학사상 3장 3절에서 서애, 추수익, 구양덕, 나홍선, 섭표, 전덕홍, 왕기, 왕간, 4장에서 왕벽, 나여방, 이지를 다루고 있다.
45) 원서명은 『左派王學』으로 양명 좌파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다루고 있다. 목차는 Ⅱ. 왕용계와 왕심재 Ⅲ. 태주학파의 중요 인물 Ⅳ. 이지의 양명 좌파 Ⅴ. 양명 좌파의 역사적 평가

학사』(명지출판사, 2016), 총 5종이 있다. 중국도서 3종과 일본도서 1종 및 서양도서 1종으로 다양한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이 가운데『양명학통론』은 양문 후학의 분화와 전개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룬 저술로써 중국양명학파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있지 않았던 한국학계에 중국양명학파 연구에 대한 관심을 불어 넣어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장쉬예즈의『명대철학사』는 가장 많은 양명학파 인물들을 다루면서 그들의 생애와 사상적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다.[46] 다만 2000년에 중국에서 처음 간행되었음에도[47] 불구하고 2016년도에야 번역본이 출판되어 한국학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지 관련 2종과 황종희 관련 2종, 그리고 서위와 주약극 관련 각각 1종이 있다. 이 가운데 4종은 인물 평전에 해당한다. 예컨대 홍승직이 번역한 鄢烈山·朱健國의『이탁오 평전』(돌베개, 2005)과 양휘웅이 번역한 쉬딩바오의『황종희 평전』(돌베개, 2009), 그리고 서은숙이 번역한 저우스펀의『서위』(창해, 2005)와『석도』(창해, 2006)가 있다. 이러한 평전 유형의 번역서는 양명후학의 사상들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르게 변용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 외에 김용천이 번역한 미조구찌 유조의『중국 전근대 사상의 굴절과 전개』(동과서, 1999)는 상론과 하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상론에서는 이지를 다루고 하론에서는 이지와 황종희를 다루고 있다.

외국 문헌 번역서 부분에 있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는 총론 부분에 있어 최근의 연구 성과물들이 번역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중국에서는 '양명 후학'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서적이 다수 출판되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저서로는 錢明의『陽明學的形成與發展』(江蘇古籍出版社, 2002)과『王陽明及其學派論考』(人民出版社, 2009), 吳震의『陽明後學硏究』(上海人民大版社, 2003), 鮑世斌의『明代王學硏究』(四川出版集團, 2004), 彭國翔의『良知學的展開一王龍溪與中晚明的陽明學』(三聯書店, 2005년)이 있다.[48] 이 저서들은 중국을 대표하는 양명학 연구자들의 중요한 연구 성과물들이다. 중국은 물론 대만과 일본 학자들의 다양한 저술 또한 함께 번역 소개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학자들의 번역서가 간행됨으로써 다양한 시각을 알 수 있고, 이는 곳 학문의 융복합과 창의성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46) 총 34개 장 가운데 7장 왕용계, 8장 황관, 9장 추수익, 10장 구양덕, 11장 섭표, 12장 나홍선, 13장 왕시괴, 14장 호직, 15장 이재, 16장 왕간, 17장 나여방, 18장 경정향, 19장 초횡, 20장 이지, 27장 유종주, 28장, 황종희를 다룸. 총 16 개장에서 양명학파를 다루고 있음

47) 張學智,『明代哲學史』, 北京大學出版社, 2000. 2012년에 人民大學出版社에서 수정판을 냄

48) 이 외에도 대표적으로 2009년에 中國人民大學出版社에서 간행된 '陽明學硏究叢書' 11종이 있다. 이 가운데『浙中王學硏究』(錢明 著),『江右王學通論』(徐儒宗),『劉宗周與蕺山學派』(何俊),『黃宗羲與淸代浙東學派』(吳光) 4권이 양명학파와 관련된 저술이다.

두 번째는 중국양명학파의 보다 많은 인물들에 대해 연구한 다양한 저서의 번역서 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까지 번역서로 출판된 인물은 4명에 불과하다. 양명학파 개별 인물에 대한 연구 성과물들이 많이 있다. 예컨대 高瑋謙의 『王龍谿哲學系統之建構』(臺灣學生書局, 2009), 林月惠의 『良知學的轉折-聶雙江與羅念庵思想之研究』(臺灣大大學出版中心, 2005), 張衛紅의 『羅念庵的生命歷程與思想世界』(三聯書店, 2009), 張宏敏의 『黃綰道學思想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7), 高海波의 『慎獨與誠意-劉蕺山哲學思想研究』(三聯書店, 2016) 등이 있다. 양명학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지만 그 전개과정은 획일적이거나 교조주의적이지 않고 다양하다. 이는 곧 시대정신의 반영이자 양명학에서 중시하는 수시변역(隨時變易)과 권도(權道)의 내재화이자 발현으로써, 다양한 학자들에 대한 연구 내용을 통해 한국 사회는 물론 인류가 처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을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 Ⅳ. 박사학위논문에 대한 분석과 평가

중국양명학파를 다룬 박사학위논문은 총 45편에 이른다. 박사학위논문에서 다루어진 학파나 인물은 매우 다양하고 학위취득 지역과 대학 또한 매우 광범위하다. 본장에서는 중국양명학파 관련 박사학위논문을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중국양명학파를 개관한 논문

중국양명학파를 개관한 논문은 총 6편이 있다. 이 가운데 철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논문은 김성태의 「陽明學派의 良知說에 관한 研究」(서울대학교, 1996)가 있다. 2장 3절 '未發歸寂과 良知論辯'에서는 섭표와 구양덕, 나홍선과 왕기 사이의 '良知知覺 論辯'과 섭표와 추수익, 섭표와 왕기 사이의 '格物 論辯'을 다루고, 3장 3절 '已發現成과 良知論辯'에서는 왕기와 장원변 사이의 '自然과 警惕 論辯'과 왕기와 전덕홍 사이의 '四無와 四有 論辯'을 다루고 4장 '王門分類 問題: 王門三派說 批判'에서는 '王門 제자의 修證에 대한 견해', '王畿의 現成良知와 修證', '歐陽德 鄒守益 錢德洪과 修證'과 더불어 '王門 분류에 대한 異見들(二派說, 三派說, 四派說, 六派說, 지역 연고에 따른 분류)을 다루고 있다. 중국양명학파를 총체적으로 조망한 첫 번째 국내박사학위논문인 이 논문은 양명학파 분화 과정과 양명후학 간의 다양한 논변은 물론 양명학파 분류의 현상과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써 국내에서 중국양명학파 연구의 초석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외에 김석암의 「雲棲袾宏의 禪修行觀 研究」(동국대, 2006)는 V장에서 명말 승려 운서 주굉(1535~1615)의 사상과 양명학과의 연관성을 왕양명, 왕용계, 이탁오와의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임종수의 「林兆恩의 宗教思想에 관한 研究 : 三教合一論을 中心으로」(성균관대, 2010)에서는 명대 삼일교(三一教)의 교주인 임조은(1517~1598)의 종교사상을 유불도 삼교합일의 관점을 중심으로 규명하면서, 유교의 경우에는 왕양명, 왕기, 초횡 등을 통해 삼교가 그 뿌리에서 같다는 삼교동원(三教同源)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두 편의 논문은 양명학의 원융회통의 연원과 특징을 잘 드러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내에서 나온 3편의 박사학위논문이 모두 철학 분야의 논문인 반면, 해외에서 나온 3편의 박사학위논문은 모두 문학 분야이다. 먼저 이상철의 「明代戲曲創作論研究」(國立臺灣師範大, 1996)에서는 서위와 이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찬순의 「明代理學家文學理論研究」(國立臺灣大, 1999)는 왕양명, 왕간, 추수익, 이지는 물론 공안파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있다. 그리고 박종학의 「晚明文學思想研究」(北京師範大, 1997)는 이지의 '동심설(童心說)', 탕현조의 '유정설(唯情說)', 공안삼원(公安三袁)의 '성령설(性靈說)'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논문들은 양명학이 명대 문학의 형성에 미친 영향과 문학사상의 특징을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

다만 저서에서와 같이 중국양명학파를 전체적으로 개관한 학위논문이 매우 적다. 개별 인물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양명학파 전반을 총체적으로 다룬 박사학위논문이 좀 더 많이 나올 필요가 있다.

## 2. 강우, 절중, 태주 3대 주요 학파와 관련한 논문

강우학파와 절중학파와 관련된 논문은 총 5편이 있다. 강우학파와 관련해서는 宣炳三의 「歐陽德哲學研究」(中國 北京大, 2011) 단 1편이 있다. 그리고 절중학파와 관련해서는 劉哲浩의 「周海門哲學思想研究」(臺灣 輔仁大, 1986), 鄭址郁의 「良知現成論に關する研究」(日本 九州大, 1998), 이주행의 「陽明學과 王畿의 無爲儒學」(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49] 및 宣炳三의 「王龍谿 哲學 研究」(성균관대, 2007)[50] 4편이 있다. 이 가운데 3편이 왕기와 관련된 논문이다. 두 학파의 다양한 인물들에 견주어 볼 때 매우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주행과 선병삼의 왕기 관련 박사학위논문은 저서로 출간되었다.

태주학파와 관련된 논문은 총 10편이 있다. 이 가운데 태주학파의 주요 인물인 하심은, 나

49) 저서 『무위 유학: 왕기의 양명학』(소나무, 2005)로 간행되었다.
50) 저서 『양명학의 새로운 발견』(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로 간행되었다.

여방, 왕간에 대한 논문이 각각 1편씩 있고, 나머지 7편은 이지에 관한 논문이다. 韓睿媛의 「何心隱の生涯と思想」(日本 東京大, 1992), 李慶龍의 「羅汝芳思想研究」(國立臺灣大, 1999), 박상리의 「王艮의 心身哲學에 관한 연구」(성균관대, 2000)가 있다. 3편 모두 태주학파의 주요 인물에 대한 생애와 사상을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주었다는 점에서 태주학파 연구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상리의 「王艮의 心身哲學에 관한 연구」는 양명학설이 왕간에게 어떻게 소화 흡수되었는지를 다루고자 하는 취지 아래 왕간의 독창적 논리구조인 '心身哲學'의 내용을 생명의 실현이라는 큰 전제를 가지고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필자는 왕간의 심신철학은 개체에 대한 자각이며, 생명에 대한 존엄을 의미한다고 결론 맺고 있다.[51] 이 논문은 국내에서 왕간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연구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지에 관한 논문은 이지의 생애와 사상 전반 및 후세에 미친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다룬 손예철의 「李卓吾成學過程之研究」(國立臺灣大, 1987) 외에 철학 분야와 문학 분야로 나누어진다. 예컨대 신용철의 "Die Sozial-Kritik des Li Chih, am Beispiel Seiner Einstellung Zur Frau,"(1982),[52] 김세서리아의 「儒家倫理의 實體化가 女性觀에 미친 影響과 그 批判에 관한 研究」(성균관대, 1997), 유동환의 「李贄의 天理人欲論 研究」(고려대, 2000), 이권효의 「『焚書』·『續焚書』에 나타난 李贄의 好學觀 研究」(영남대, 2009)는 철학 분야의 논문에 해당한다면, 崔炳學의 「李贄文學思想的實質及其與五四新文學的聯繫」(中國 復旦大, 2000)와 김춘희의 「李贄 산문연구」(전북대, 2010)는 문학 분야에 해당한다. 학위취득 대학 또한 국내(성대, 고려대, 전북대, 영남대)는 물론 독일(신용철), 대만(손예철), 중국(최병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7편의 이지 관련 논문은 이지 연구에 대한 다양한 흐름을 조망하게 해준다.

김세서리아의 「儒家倫理의 實體化가 女性觀에 미친 影響과 그 批判에 관한 研究」는 4장에서 이지의 사상에서 보이는 '근대적 개인(개체)'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지의 사상 속에서 표출되는 전체로부터의 분리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의 확보, 그리고 인간이 갖는 자연적 속성 대한 긍정, 봉건적 의식 형태를 약화시키는 역할 및 여성을 독립된 개체로 보는 이지의 여성관을 다루고 있다.[53] 김세서리아의 논문이 이지와 관련한 내용을 한 장에서 다루고 있다면, 유동환의 「李贄의 天理人欲論 研究」는 논문 전체에서 이지를 조망하고 있다. 이지의 개체

51) 박상리, 「王艮의 心身哲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0, 169~175쪽 참고.
52) 이 논문에 대한 소개는 신용철의 「『女性觀을 통해 본 李贄의 社會批評』要約」(『慶熙史學』 9.10, 1982)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53) 김세서리아, 「儒家倫理의 實體化가 女性觀에 미친 影響과 그 批判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6, 10쪽 및 158쪽 참고.

욕망 긍정과 관련하여 '동심설(童心說)', '사욕긍정론', '가도학(假道學) 비판', '성인군주론(聖人君主論)'뿐만 아니라 '사욕론의 후대 영향과 역사 평가'까지 다루고 있다. 이지의 욕망 긍정의 논리는 '전체(公)'에 대한 '개체(私)'의 영역을 긍정하는 등 멀리 근대적 사유를 전망하는 단편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결론 맺고 있다.[54] 두 편의 논문은 봉건사회에서 근대로의 전환에 있어 이지의 사상이 지닌 근대성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 3. 명말청초 문학·예술·미학 관련 논문

명말청초 문학·예술·미학과 관련한 논문은 19편이 있다. 권응상의 「徐渭 文學論 硏究」(서울대, 1993) 등 서위 관련 논문 6편과[55] 강경범의 「袁宏道 散文 硏究」(성균관대, 2000) 등 원굉도 관련 논문 7편,[56] 그리고 백륜수의 「석도 예술 사상과 그 양명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서울대, 1996) 등 주약극 관련 논문 6편이 있다.[57] 양명학파 개관이나 강우학파, 절중학파, 태주학파의 인물들에 대한 학위논문의 경우 총 21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편이 해외박사학위논문인 반면, 이 분야의 경우에는 총 19편 가운데 2편만이(조미연, 권선희) 해외박사학위논문으로 국내박사학위논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 가운데 명말청초 예술의 양명학적 배경과 특성을 면밀하게 밝혀주는 논문이 있다. 먼저 신은숙의 「徐渭 大寫意畵의 陽明心學的 狂態美學 硏究」(2010)에서는 계본(季本)과 왕기의 제자로 양명좌파의 계승자였던 서위는 양명좌파의 일원답게 삶과 예술세계에서 철저하게 '전통에 대한 부정', '반중화(反中和)적, 격열적 사유방식', 그리고 '儒佛道의 소통'을 구현하고자 추구하였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그리고 백륜수의 「석도 예술 사상과 그 양명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1996)는 기존의 주약극의 일획론(一劃論)과 『화어록』에 대한 유불도 삼교에 의한 해석에서 벗어나 양명학의 영향 관계 등을 밝히고 있다. 개인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왕기와 태주학파의 논리는 주약극이 사왕류의 화풍에서 벗어나 독자적 화풍을 형성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반면, 치지 공부를 중시하고 보편성을 강조하는 구양덕의 정신을 계승하

---

54) 유동환, 「李贄의 天理人欲論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0, 253쪽 참고.

55) 조미연의 「徐渭的曲論與劇作之硏究」(中國 南京大學, 2001), 신은숙의 「徐渭 大寫意畵의 陽明心學的 狂態美學 硏究」(성균관대학교, 2010), 이주현의 「徐渭 詩의 否定性과 예술 창작의 원리」(서울대, 2014), 장리의 「徐渭繪畵的理論與創作硏究」(영남대, 2016), 정정욱의 「文人畫의 狂狷美學的 硏究」(성균관대, 2019)

56) 이기면의 「袁宏道性靈說硏究」(고려대, 1993), 우재호의 「袁宏道 詩歌 硏究」(서울대, 1995), 남덕현의 「公安派之文學理論硏究: 以袁氏三兄弟爲代表」(한국외대, 1995), 이우일의 「袁宏道와 朴趾源의 文學思想 硏究」(성신여대, 2003), 신진아의 「『金瓶梅』에 나타난 육체인식과 형상화 방식 연구」(연세대, 2013), 홍혜진의 「18세기 강남 도시의 문예장과 원매의 글쓰기」(서울대, 2015)

57) 權善姬의 「石濤以 "一畫" 爲中心的 繪畫美學思想硏究」(中國 北京大學, 2000), 장선아의 「석도(石濤) 화론의 생성론적 특성 연구」(성균관대, 2015), 황연섭의 「石濤 繪畫美學思想의 陽明心學的 硏究」(성균관대, 2015), 이민경의 「石濤和尙의 一劃(일획)思想 硏究」(동국대, 2015), 박정영의 「石濤의 一畫論과 畵敎禪일치」(중앙대, 2016)

고 있다 점을 밝혀주었다. 황연섭의 「石濤 繪畵美學思想의 陽明心學的 研究」(2015)에서는 주약극의 회화미학사상이 양명심학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주약극이 제시한 일획(一劃)의 개념이 양명심학의 심즉리(心卽理)의 심(心)과 연계되어 있고, 석도 회화미학의 양명학적 체인(體認), 즉 심을 통해서 바라본 객관사물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문들은 양명학이 예술로 어떻게 계승 발전되어 가는 가를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철학과 예술의 만남과 소통의 길을 마련해 주고 양명학 연구의 지평을 넓혀주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 4. 명말청초 양명학 관련 논문

다섯째, 명말청초의 양명학과 관련한 기타 논문이다. 5편이 있다. 먼저 인물과 관련해서는 황종희와 관련하여 남성훈의 「黃宗羲와 顧炎武의 政治思想의 比較研究」(전북대, 1986)와 김동현의 「黃宗羲의 『易學象數論』에 관한 연구」(동국대, 2018) 2편이 있으며, 당견과 관련해서 김덕균의 「唐甄의 哲學思想에 나타난 近代 志向的 性格-潛書를 중심으로」(성균관대, 1994) 1편이 있고,[58] 유종주 관련해서 신현승의 「劉宗周の學問世界とその周緣」(日本 東京大學院, 2006) 1편이 있다. 그 외에 홍성민의 「淸代哲學의 義理學 轉換에 관한 연구」(동국대, 2018) 1편이 있다.

이 가운데 「黃宗羲의 『易學象數論』에 관한 연구」는 황종희의 대표적인 저서 『易學象數論』 6권을 분석한 논문으로, 『易學象數論』의 구성 체제와 내·외편 분석 및 황종희의 治『易』 특징과 역학 주요 주장들을 체계적으로 다루어 주고 있다. 황종희의 주요 저작인 『明夷待訪錄』과 『孟子師說』의 번역에 이어 황종희의 경학 사상 연구의 지평을 넓혀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황종희의 경우 3권의 저서, 5권의 원전 번역서, 2권의 외국문헌 번역서 등 저서에 비추어 볼 때 박사학위논문이 너무 부재하다. 황종희나 유종주 모두 양명학파의 전개와 마무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논문이 너무 적다.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 5. 학위취득 기관의 다양성

박사학위논문과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바로 학위 취득 기관의 다양성이다. 우선 해외에서의 중국양명학파 관련 박사학위취득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 박

---

58) 본 논문은 『명말 청초 사회사상』(한국학술정보(주), 2007)으로 출판되었다.

사학위논문은 총 13편이다. 지역별로는 대만 5편, 중국 4편, 일본 3편, 독일 1편이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주로 1980~1990년대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59] 학위 취득 대학 또한 輔仁大, 臺灣大, 臺灣師範大 등 다양하다. 중국과의 수교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대만보다는 중국 대륙에서 중국양명학파 관련 박사학위논문이 나온다.[60] 학위취득 대학 또한 北京大, 復旦大, 南京大, 北京師範大 등 다양하다. 일본에서도 하심은과 유종주와 왕기와 왕간을 다룬 논문이 나왔다.[61] 2000년대 들어 중국에 집중되면서 대만과 일본 등에서 중국양명학파 관련 박사학위논문이 나오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다양한 국가에서 박사학위논문이 나와야 학문의 다양성을 보증하고 나아가 그 다양성이 만나 융복합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중국양명학파 관련 박사학위논문이 31편이 있다. 성균관대 10편, 서울대 6편, 동국대 4편, 고려대, 영남대, 전북대 각 2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외국어대, 연세대, 중앙대, 성신여대 각 1편에 해당한다. 11개 기관에서 중국양명학파와 관련한 박사학위논문이 나왔다는 점에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성균관대가 10편으로 3분이 1에 해당하고, 성균관대와 서울대를 합쳐 16편으로 반이 넘는다. 특정 대학에 집중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Ⅴ. 학술논문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중국양명학파 관련 학술논문은 총 413편에 이른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1) 중국양명학파 형성과 개관 논문이 19편 2) 강우학파 관련 논문이 19편 3) 절중학파 관련 논문이 35편 4) 태주학파 관련 논문이 149편, 5) 명말청초의 양명학 관련 논문이 191편에 해당한다. 양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양명학파 형성과 개관 논문'은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중국양명학파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연구로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다소 부족한 편이다. 둘째, 주요한 3개 학파에 있어서도 태주학파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태주학파 관련 논문(149편)이 강우학파(19편)와 절중학파(35편) 관련 논문을 모두 합한 논문(54편)의 대략 3배에 해당한다. 중국양명학파의 객관적인 지형도를

59) 劉哲浩의 「周海門哲學思想研究」(輔仁大學, 1986), 손예철의 「李卓吾成學過程之研究」(臺灣大, 1987), 이상철의 「明代戲曲創作論研究」(臺灣師範大, 1996), 안찬순의 「明代理學家文學理論研究」(臺灣大, 1999), 李慶龍의 「羅汝芳思想研究」(臺灣大, 1999)가 있다.

60) 박종학의 「晩明文學思想研究」(北京師範大, 1997), 崔炳學의 「李贄文學思想的實質及其與五四新文學的聯繫」(復旦大, 2000), 權善姬의 「石濤以 "一畫" 爲中心的 繪畫美學思想研究」(北京大, 2000), 조미연의 「徐渭的曲論與劇作之研究」(南京大, 2001), 宣炳三의 「歐陽德哲學研究」(北京大, 2011)가 있다.

61) 韓睿媛의 「何心隱の生涯と思想」(東京大, 1992), 鄭址郁의 「良知現成論に關する研究」(九州大, 1998), 辛炫承의 「劉宗周の學問世界とその周緣」(東京大, 2006)이 있다.

그리기 위해서는 3개 학파에 대한 균형 잡힌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태주학파 관련 논문에 있어서도 이지와 관련한 논문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태주학파 관련 논문 149편 가운데 이지 관련 논문이 102편으로 대략 3분의 2에 해당한다.[62] 연구의 다양성을 위해 태주학파의 다른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명말청초의 양명학파에 대한 연구 논문이 191편으로 3개 학파에 대한 연구논문(203편)과 양적으로 거의 비슷하다.[63]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 비교적 균형 잡힌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그럼 유형별로 나누어 주요한 연구 성과와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만 분량 제한으로 인해 연구논문 413편 모두를 하나하나 분석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주요한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 · 정리하고자 한다.

### 1. 중국양명학파 형성과 개관 논문에 대한 분석과 평가

먼저 총 19편에 해당하는 중국양명학파 형성과 개관에 관한 논문이다. 첫째, 중국양명학파 형성 배경과 형성 과정 및 분파를 소개한 논문이 있다. 예컨대 김길락의 「明代에 있어서의 陽明哲學의 展開」(『儒敎思想研究』 1, 1986), 권중달의 「명대 양명학의 성립배경」(『東洋史學研究』 23, 1986), 송하경의 「陽明學派의 形成과 그 展開(I)」(『儒敎思想研究』 4·5, 1992), 김성태의 「양명학과 왕문삼학」(『철학논구』 21, 1993), 이상훈의 「왕문의 양명학 이해-남중, 초중, 북방, 월민왕문을 중심으로」(『儒學研究』 39, 2017) 등의 논문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논문들을 중국양명학파의 분화와 형성 과정은 물론 다양한 분파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둘째, 한국과 중국에서의 중국양명학파 연구 경향에 대해 분석한 논문이 있다. 예컨대 황갑연의 「중국 양명학파 연구의 현주소와 전망」(『儒學研究』 12, 2005), 김세정의 「중국의 양명학파 연구 경향에 대한 분석과 비판」(『陽明學』 22, 2009)과 「현대 중국에서의 양명학파 연구 현황과 과제」(『陽明學』 23, 2009), 선병삼의 「중국에서의 양명학파 연구 현황 고찰」(『東洋古典研究』 58, 2015) 등의 논문이 있다. 이러한 논문들은 연구자들에게 오늘날의 중국양명학파 연구의 지형도를 제시해줌은 물론 중국양명학파 연구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셋째, 주요한 철학적 주제와 논제를 중심으로 중국양명학파의 사상적 특징은 물론 학파 간

62) 그 외에 ① 태주학파 일반 13편 ② 왕간 관련 17편 ③ 나여방 관련 7편 ④ 하심은 관련 6편 ⑤ 기타인물 관련 4편
63) 총 191편 가운데 ① 서위 관련 14편 ② 원굉도와 공안파 관련 54편 ③ 유종주 관련 36편 ④ 주약극 관련 21편 ⑤ 황종희 관련 45편 ⑥ 당견 관련 15편 ⑦ 기타 6편

의 동이점을 밝혀주는 논문이다. 예컨대 이상훈의 「왕문의 양명학 이해와 체득 -양지현성파와 양지귀적파를 중심으로-」(『東洋哲學研究』 40, 2004), 임홍태의 「양명 사구교 해석을 둘러싼 본체·공부 논쟁의 전개과정」(『한국철학논집』 28, 2010), 정인재의 「양명후학의 미발설과 공부론」(『哲學研究』 43, 2011), 이상동의 「양명후학(陽明後學)의 치지격물함의(致知格物涵義)」(『東洋哲學研究』 74, 2013) 등의 논문이 있다. 이러한 논문들은 비교 연구와 논쟁 중심의 연구를 통해 양명학파의 분화의 원인과 더불어 각 학파의 철학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밝혀줌으로써 개별 학파와 인물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논문들은 전체적으로 중국양명학파의 지형도를 그려주었다는 점에서 이후 중국양명학파 인물이나 사상 연구에 있어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중국양명학파 전체를 조망하는 총론 성격의 연구논문이 나오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 2. 강우학파 관련 논문에 대한 분석과 평가

강우학파 관련 논문은 총 19편이 있다.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우학파를 개관해 볼 수 있는 논문으로 이상훈의 「王門江右學派의 致良知學 義理와 그 意義」(『陽明學』 11, 2004) 단 1편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강우학파의 섭표, 나홍선, 유방채(劉邦采), 왕시괴(王時槐)의 주요사상을 분석하여 이들이 체득한 치양지학과 그 의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다만 추수익, 구양덕, 진구천(陳九川)을 다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주요한 인물들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이다. 예컨대 김길락의 「明代心學의 分岐Ⅲ-聶豹의 心學 思想」(『孔子學』 2, 1999), 김세정의 「鄒守益의 心學思想」(『陽明學』 3, 1999), 선병삼의 「구양덕의 양지 본체론과 치양지 공부론」(『陽明學』 29, 2011), 서강휘의 「幾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본 진명수의 心體觀」(『東洋哲學』 52, 2019), 김연재의 「羅洪先의 主靜體悟說과 惟一萬殊의 도덕형이상학적 원리」(『陽明學』 55, 2019) 등이 있다. 이처럼 섭표, 추수익, 구양덕, 진명수, 나홍선 등 강우학파의 주요 인물들의 사상과 특징들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셋째, 학자들 간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 비교 연구이다. 김성태의 「見在良知와 도덕주체-王畿와 聶豹의 도덕주체 논변」(『哲學研究』 37, 19905), 임홍태의 「구양덕과 나흠순의 논쟁」(『유교문화연구』 3, 2004), 이상훈의 「聶雙江과 羅念菴 思想의 主要 義理와 爭點 考察」(『陽明學』 34, 2013)이 있다. 다양한 논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강우학파 학인들의 학문적·사상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이러한 논문들은 강우학파에 대한 소개는 물론 강우학파의 사상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소

개해주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 다만 좀 더 많은 연구 성과가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으며, 이후 강우학파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3. 절중학파 관련 논문 분석 및 평가

절중학파 관련 논문은 총 35편으로 강우학파 관련 논문(19편)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지만 태주학파 관련 논문(149편)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유형별 주요한 성과와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절중학파 전체를 개관한 논문은 단 1편에 불과하다. 이상훈의 「王門 浙中學派의 致良知學 義理와 그 意義」(『陽明學』 21, 2008)에서 절중학파 학자들의 왕양명 치양지학에 대한 이해와 체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덕홍, 왕기, 계본의 학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절중학파는 왕양명의 치양지학에 대해 학자마다 독창적인 논리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왕양명의 본의도 잘 순승(順承)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64]

둘째, 왕기 관련 논문(22편)이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왕기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김성태의 「見在良知와 도덕주체-王畿와 聶豹의 도덕주체 논변」(『哲學硏究』 37, 1995), 송하경의 「明代 心學의 分岐Ⅰ-王畿·王艮의 心學」(『孔子學』 2, 1996), 임홍태의 「용계와 서산의 사구교 해석」(『退溪學論叢』 17, 2011) 등의 논문에서는 왕기와 다른 양명학자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왕기 사상의 특성을 밝혀주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논문은 정지욱의 「왕용계의 양지현성론」(『陽明學』 6, 2001,)[65]선병삼의 「王龍溪의 先天正心 工夫論」(『陽明學』 14, 2005),[66] 김연재의 「왕기의 心性論과 그 易理的 해석」(『陽明學』 16, 2006) 등의 논문에서 볼 수 있든, 왕기의 사상을 다양한 주제로 접근하고 있는 바, 이러한 논문들은 왕기 사상의 내용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셋째, 왕기 이외에 전덕홍(7편)과 주여등(5편)에 관한 연구 성과가 있다. 전덕홍과 관련해서는 임홍태의 「錢德洪의 "四有"說 연구」(『東洋哲學硏究』 28, 2002), 「錢德洪과 王龍溪의 工夫論 比較硏究」(『陽明學』 9, 2003), 「용계와 서산의 사구교 해석」(『退溪學論叢』 17, 2011)와 김세정의 「錢德洪의 비판의식과 실천정신」(『陽明學』 25, 2010), 「錢德洪의 역동적 良知本體論」(『陽明學』 27, 2010), 「錢德洪의 실천적 致良知 공부론」(『陽明學』 28, 2011)이 있다.[67] 비

---

64) 이상훈, 「王門 浙中學派의 致良知學 義理와 그 意義」, 『陽明學』 21집, 한국양명학회, 2008, 83~84쪽 참조.
65) 정지욱은 「良知現成論に關する硏究: 王龍溪王心齋を中心にして」(日本 九州大, 1998)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왕기와 왕간 관련 논문 3편이 있다.
66) 선병삼은 「王龍谿 哲學 硏究」(성균관대, 2007)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왕기 관련 논문 5편이 있다.
67) 김세정은 이 논문들을 토대로 하여 『양명학자 전덕홍의 양지철학』(충남대출판문화원, 2013)를 출간하였다.

록 편수는 적으나 전덕홍의 사상 자체는 물론 다른 학자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전덕홍 사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학술적 성과를 이루었다. 주여등과 관련해서는 유철호의 「周海門의 有無一體的 本體觀心體無善無惡論」(『東洋哲學의 체계와 인식』, 1998)과 이상훈의 「許敬菴과 周海門의 九諦九解論辯 고찰」(『儒學研究』 30, 2014) 등이 있는 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주여등의 생애와 사상을 소개했다고 하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

## 4. 태주학파 관련 논문 분석 및 평가

태주학파와 관련해서는 총 149편의 연구논문이 있다. 유형별 주요 성과와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이지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 총 149편 가운데 태주학파 일반에 대한 논문이 13편, 왕간 관련 논문이 17편, 나여방 관련 논문이 7편, 하심은 관련 논문이 6편, 이지 관련 논문이 102편, 기타 인물에 관한 논문이 4편이다. 태주학파 일반은 물론 왕간, 나여방, 하심은, 이지 등 태주학파의 주요 인물들을 고르게 다룸으로써 태주학파 전모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 다만 여기서도 149편 가운데 이지에 관한 연구논문이 102편에 해당할 정도로 이지 연구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태주학파 일반에 관한 논문이 13편으로 다른 학파 일반에 관한 논문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는 점이다. 예컨대 김수중의 「明代 泰州學派의 사회사상」(『시대와 철학』 1, 1987), 정지호의 「泰州學派와 그 思想의 展開」(『高凰論集』 6, 1990), 전병술의 「泰州學派의 理論 展開」(『陽明學』 3, 1999), 이상훈의 「王門 泰州學派 致良知學 義理와 그 意義」(『陽明學』 19, 2007), 김수중의 「泰州學派의 민간 교육」(『陽明學』 21, 2008) 등의 논문에서 볼 수 있듯, 태주학파의 형성 과정은 물론 태주학파의 전개 과정과 활동 상황 및 사상적 특성들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태주학파의 사상적 특성과 역사적 의의가 무엇인지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셋째, 왕간, 나여방, 하심은과 관련한 논문들이다. 왕간의 경우 정지호의 「王艮의 社會思想」(『東洋學研究』 1, 1889)을 필두로 박상리의 「王艮의 安身說」(『陽明學』 3, 1999),[68] 이경룡의 「태주학파 王艮의 수양론과 大成學」(『陽明學』 5, 2011), 황갑연의 「시대정신에서 본 王艮철학의 의의」(『陽明學』 18, 2007), 이우진의 「태주학파 왕간의 친서민적 교육사상」(『陽明學』 48, 2017) 등이 있다. 나여방의 경우에는 김성태의 「양명좌파 나여방(羅汝芳)의 철학사상」(『陽明學』 창간호, 1997), 이경룡의 「태주학파 羅汝芳의 삼단계 判敎論」(『陽明學』 6, 2001), 전병

68) 박상리는 「王艮의 心身哲學에 관한 연구」(성균관대, 2000)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왕간 관련 논문 4편이 있다.

술의 「심령과 치유의 관점에서 본 나여방의 사상」(『陽明學』 21, 2008) 등이 있다. 하심은의 경우에는 총 6편 가운데 「何心隱의 萬物一體的 秩序像에 관하여」(『韓國漢文學研究』 16, 1993)와 「하심은의 학문과 강학」(『陽明學』 20, 2008)을 포함하여 5편이 한예원의 논문이다.[69] 이러한 논문들은 왕간, 나여방, 하심의의 생애는 물론 이들의 주요한 철학적 논제들과 아울러 이들의 시대정신에 대해 다룸으로써 태주학파 양명학자들의 독창적이고 주체적이며 실천적인 사상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넷째, 개별 인물로써 가장 많은 연구논문이 있는 이지에 관한 연구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먼저 신용철의 「明代 李贄와 그 生涯」(『高凰論集』 26, 1982) 등에서 볼 수 있듯 이지의 생애에 대한 논문은 물론, 김덕균의 「李卓吾 철학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韓中哲學』 2, 1996) 등 이지의 철학사상에 관한 연구 논문, 신용철의 「李贄(卓吾)의 歷史觀試論」(『慶熙史學』 11, 1993) 등 이지의 역사관 관련 논문, 이병한의 「李贄의 문학론-童心說을 중심으로」(『中國學報』 27, 1987) 등 이지의 문학에 관한 논문, 신용철의 「李卓吾의 教育思想」(『동양학연구』 4, 1998) 등 이지의 교육사상에 관한 논문, 김정호의 「중국 明末의 자유사상가 李贄의 정치사상」(『한국동북아논총』 28, 2003) 등 이지의 정치사상에 관한 논문, 전병술의 「니체와 이탁오」(『陽明學』 27, 2010) 등 이지와 다른 사상과의 비교연구논문 등 매우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주제로 다루어졌다. 주요 성과 중에 하나는 2007년도에 간행된 『오늘의 동양사상』 16호에서 특집으로 이지를 다루었다는 점이다. 최재목의 「총론: 이탁오를 다시 읽는다」, 신현승의 「중국의 이탁오 연구 동향과 그 사상사적 영향」, 엄석인의 「일본에서의 이탁오 사상 영향과 그에 대한 연구 현황」 등 6편의 글에서 이지 관련 국내외 연구 성과를 총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이지 연구의 경향과 의의와 과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아울러 이지의 경우에는 다른 양명학자와 달리 조선유학사상과의 관련성을 밝힌 논문들이 다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박현규의 「허균이 도입한 李贄 저서」(『中國語文學』 46, 2005), 이영호의 「이탁오와 조선유학」(『陽明學』 21, 2008), 구교헌의 「李卓吾와 조선후기 「童心」의 사유양상에 대한 고찰」(『중국어문학논집』 64, 2011) 등의 논문에서[70] 이지사상의 조선 유입과 수용 과정은 물론 이지사상이 조선시대 문학과 유학사상에 미친 영향 관계를 면밀하게 밝혀주고 있다.

---

69) 한예원은 「何心隱の生涯と思想」(東京大學, 1992)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내 유일의 하심은 전공자라고 할 수 있다.

70) 이외에 신용철의 「한국에 있어서 이탁오(1527-1602)연구」(『韓國思想史學』 4, 1993), 강명관의 「燕巖 時代의 陽明左派 수용」(『大東漢文學』 23, 2005), 장병한의 「沈大允과 李贄의 理欲觀 비교 일고찰」(『陽明學』 24, 2009) 등이 있다.

## 5. 명말청초 양명학 관련 논문에 대한 분석과 평가

마지막으로 명말청초의 양명학과 관련한 연구논문이다. 총 191편의 논문이 있다. 유형별로 주요 성과와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인물들에 대해 비교적 균형 있는 연구 성과가 나왔다. 서위 관련 논문이 14편, 원굉도와 공안파 관련 논문이 54편, 유종주 관련 논문이 36편, 주약극 관련 논문이 21편, 황종희 관련 논문이 45편, 당견 관련 논문이 15편, 기타 논문이 6편이다.

둘째, 서위 관련 논문들은 모두 서위의 문학과 예술에 관한 논문이다. 예컨대 권응상의 「서위의 문학론 연구」(『중국어문학』 16, 1989), 오수경의 「서위희곡연구」(『중국어문학』 35, 2000), 张莉의 「徐渭画论形成的渊源」(『東亞人文學』 34, 2016) 등이 있다. 이러한 논문들은 서위 문학작품과 예술작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서위의 문학사상과 예술사상의 체계와 특징을 체계적으로 밝혀주었다.

셋째, 원굉도와 공안파와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문학 방면에서 진행되었다. 예컨대 우선 우재호의 「원굉도 시가의 사회시적 성격」(『중국어문학』 24-1, 4)과 「袁宏道의 詩論」(『중국과 중국학』 1, 2003), 이주현의 「원굉도(袁宏道) 시의 ‘전변'에 관한 검토」(『中語中文學』 65, 2016) 등에서 볼 수 있듯 원굉도의 문학 작품과 문학사상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 가운데 김정희의 「袁宏道 性靈說 研究 -李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石堂論叢』 23, 1996), 이주현의 「칭송과 동경, 그리고 새 방향의 모색 - 원굉도(袁宏道)의 서위(徐渭) 시 수용에 관한 고찰」(『中國語文論叢』 68, 2015), 조민환의 「李贄와 袁宏道의 ‘狂者觀’에 관한 비교 연구」(『中國學報』 90, 2019) 등과 같이 이지나 서위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원굉도 사상의 특징을 밝힌 연구 경향이 있다. 원굉도 연구에 있어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는 원굉도와 북학파를 비롯한 조선의 문학과의 연관성을 다룬 논문들이 나왔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우일의 「袁宏道와 朴趾源의 思想 比較研究」(『漢文古典研究』 8, 2004), 심경호의 「조선후기 한문학과 원굉도(袁宏道)」(『韓國漢文學研究』 34, 2004), 이동순의 「이언진 문학과 원굉도 문학의 상관성」(『어문논집』 60, 2009), 이명희의 「李廷龜와 袁宏道의 遊記 比較 研究」(『韓國漢文學研究』 50, 2012) 등에서 볼 수 있듯 다양한 비교 연구가 진행되면서 원굉도의 문학이 조선 후기 문학에 미친 영향 관계를 밝혀주었다. 그리고 공안파와 관련해서는 이기면의 「明末 公安派 문학의 抒情性 연구」(『中國學論叢』 18, 한국중국문화학회, 2004), 구교현의 「公安派와 燕巖學派의 文學理論 比較: 童心論를 중심으로」(『중국학논총』 19, 2005), 이주현의 「공안파(公安派)의 시론 다시 읽기」(『中國文學』 86, 2016) 등의 논문에서 볼 수 있듯 공안파 문학의 체계와 특성 및 의의를 밝혀주었다.

넷째, 유종주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철학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예컨대 김용재의 「蕺山劉宗周의 愼獨학설에 관한 연구」(『陽明學』 5, 2001), 이상호의 「유종주 철학에 나타난 양명 우파적 경향성」(『中國哲學』 10, 2002), 신현승의 「신유학의 『대학』 텍스트와 유종주의 대학관」(『儒學硏究』 28, 2013) 등의 논문에서 볼 수 있듯 유종주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유종주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71] 신현승은 유종주 관련 논문 36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유종주의 생애와 철학사상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유종주의 후학과 후대에 미친 영향은[72] 물론 즙산학의 현대적 역할 가능성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73]

다섯째, 주약근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그의 회화(繪畵)와 관련한 논문들이다. 예컨대 정성남의 「石濤의 회화사상 고찰: '一畫論'을 중심으로」(『역사와 사회』 34, 2005), 장선아의 「石濤 '一畫'론의 體用論的 고찰」(『동양예술』 21, 2013), 권선희의 「石濤 '一畫論'에 대한 미학적 연구」(『동양예술』 21, 2013), 박정영의 「석도의 일획론(一畫論)과 성기(性起) 사상」(『韓國思想과 文化』 79, 2015) 등은 모두 주약극의 일획론(一畫論)에 담긴 예술적·미학적·철학적 특성과 의의를 고찰하고 있다. 아울러 문경희의 「石濤, 近代의 個性이라는 평가의 시선」(『美術史論壇』 33, 2011)과 박효은의 「중국회화의 근대성과 석도」(『미술사학보』 43, 2014) 등에서는 주약근의 회화에서 근대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민경의 「石濤의 一畫에 나타난 禪思想」, 『淨土學硏究』 16, 2011)와 장선아의 「石濤의 '一'와 노자의 '道' 비교분석」(『道敎文化硏究』 36, 2011) 등에서는 주약근의 회화와 도·불의 영향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여섯째, 황종희 관련한 연구는 위의 학자들과 달리 철학·문학·정치·경학 및 비교연구 등 매우 다양한 분야와 방면에서 진행되었다. 예컨대 강중기의 「황종희의 주자학 비판과 기 일원론」(『철학논구』 19, 1991)와 같이 철학사상을 다룬 논문, 강정만의 「黃宗羲의 詩論 考察」(『中語中文學』 21, 1997)과 같이 문학사상을 다룬 논문, 조영록의 「黃宗羲의 分權論—「封建」에서 「方鎭」에의 變容과 特色」(『명청사연구』 6, 1997)과 같이 정치사상을 다룬 논문, 김덕균의 「黃宗羲의 『孟子師說』에 나타난 『孟子』 「浩然章」 분석」(『韓中哲學』 4, 1998)과 같이 경학사상을 다룬 논문은 물론 남성훈의 「黃宗羲와 顧炎武의 胥吏觀」(『詳明史學』 2, 1994)과[74] 박홍

71) 辛炫承, 「劉宗周の學問世界とその周緣」, 日本 東京大學院 박사학위, 2006
72) 예컨대 「즙산학파와 그 문인집단에 관한 연구」(『동서철학연구』 58호, 2010)와 「중국 명말청초기 즙산학 후계자들에 관한 일고찰」(『동아시아문화연구』 59, 2014) 등이 있다.
73) 예컨대 「즙산의 인간론과 개과천선의 유교치료학」(『哲學硏究』 45, 2012)과 「교양교육으로서 신유학의 수기치인에 대한 일고찰: 신독론을 중심으로」(『대학교양교육연구』 2-1, 2017) 등이 있다.
74) 남성훈은 「黃宗羲와 顧炎武의 政治思想의 比較硏究」(전북대, 1986)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황종희 관련 국내 박사학위논문은 이 논문 단 한편이 있다.

석의 「簡論丁若鏞與黃宗羲的民本思想比較」(『中國學論叢』 25, 2008)와 같은 비교논문이 있다. 이 가운데 황종희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가 대략 20편으로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75] 이 논문들은 는 정치사상가로서의 황종희의 면모와 사상적 특징과 의의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용한 연구 성과로는 황종희와 한국유학의 비교 또는 연관성을 다룬 논문이 많다는 점이다. 2001년 장병한의 「황종희의 『상서고문소증, 서』에 대한 정약용의 변석(1)」(『東洋哲學研究』 26)을 시작으로 2017년 만진초의 「17세기 한중 실학자의 교육개혁안 비교연구 -유형원과 황종희를 중심으로」(『한국실학연구』 33)에 이르기까지 2000년대에 총 1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앞에서 언급된 논문들 이외에도 최재목의 「정인보의 양명학 이해—『양명학연론』에 나타난 황종희 및 『明儒學案』 이해를 중심으로」(『陽明學』 17, 2006), 婁宇烈의 「黃宗羲的心性学与宋时烈的性理学」(『儒學研究』 17, 2008), 한예원의 「정제두와 황종희의 '경세론' 비교」(『陽明學』 34, 2014), 함규진의 「전통 동아시아 사상의 민주주의적 가능성: 정약용과 황종희를 중심으로」(『儒教思想文化研究』 63, 2016), 강경현의 「조선시대 『명유학안』 독해 양상과 그 성격」(『陽明學』 46, 2017)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당견에 대한 연구는 철학사상과 정치사상에 집중되어 있다. 총 15편의 논문 가운데 김덕균의 논문이 10편에 달한다.[76] 김덕균은 1993년 「唐甄의 學問觀」(『儒教思想研究』 6)을 시작으로 「明末清初 唐甄의 平等倫理思想」(『儒學研究』 3, 1995), 「명말청초 당견의 사회비판의식」(『陽明學』 25, 2010) 등의 논문에서 당견 사상이 지닌 근대지향적 성격과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에는 「한·중·일 삼국의 『潛書』 번역 및 당견사상 연구 현황」(『陽明學』 26)이란 논문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당견 연구의 현황과 의의를 밝혀주고 있다. 그 외에 이현의 「唐甄의 經世思想 研究(Ⅰ) - 社會平等論을 中心으로」(『慶南史學』 6, 1993), 김수중의 「清初 唐甄의 철학사상」(『철학사상』 4, 1994), 이승환의 「당견唐甄의 근대 지향적 '급진 유학'」(『중국철학』 7, 2000) 등이 있다.

## Ⅵ. 중국양명학파 연구의 의의와 과제

지금까지 필자가 작성한 <한국에서의 중국양명학파 관련 연구 문헌 목록>에 수록된 자료

75)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의 경우 이용범의 「「東洋의 루소」 黃宗羲의 思想과 現代政治」(『政友』 39, 1985), 김정호의 『17세기 중국 변동기 漢族 사대부 개혁론의 의의와 한계—黃宗義와 王夫之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 2005), 김대중의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본 탈성리학적 정치론—황종희(黃宗羲),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정약용」(『한국실학연구』 13호, 2007) 등과 같이 비교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76) 김덕균은 「唐甄의 哲學思想에 나타난 近代 志向的 性格-潛書를 중심으로」(성균관대, 1994)로 박사학위를 받고, 당견 관련 저서 『명말 청초 사회사상』(한국학술정보(주), 2007)를 출간한 바 있다.

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의 중국양명학파 연구 경향에 대해 유형별-1) 저서 2) 번역서 3) 박사학위논문 4) 학술논문-로 나누어서 연구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중국양명학파 연구의 지형도를 그리고 중국양명학파 연구에 있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저서와 관련한 부분이다. 중국양명학파와 관련하여 총 17종의 저서가 간행되었다. 크게 총론격인 중국양명학파 형성과 전개에 관한 부분과 각론격인 개별 인물과 사상에 관한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총론 부분의 주요 성과에 관한 부분이다. 중국양명학파의 형성과 전개를 다룬 저서는 총 5종 있다. 이 가운데 중국양명학파를 총체적으로 조망한 최초의 저서는 1992년에 간행된 배영동의 『明末淸初思想』(민음사, 1992)이다. 총 4장 14절로 구성된 본서는 4개의 절에서 양명학의 분열과 전개 과정은 물론 양명학파의 주요인물과 핵심사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서는 역사학과 사상사적 관점에서 중국양명학파의 형성과 전개는 물론 사상적 특성을 총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의 중국양명학파 연구의 초석을 닦아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지 못하고 대표적인 인물만을 다룬 아쉬움이 남는다. 가장 최근의 저서로는 2013년에 간행된 김세정의 『양명학파 전덕홍의 양지철학』(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3)이 있다. 본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중국양명학파 연구 경향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전덕홍에 관한 저서인 관계로 다른 양명학자의 사상을 접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중국양명학파를 총체적으로 다룬 이러한 저서들은 중국양명학의 다양한 학파로의 분기의 역사적·사회적 배경과 각 학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방대한 중국양명학파를 한 권의 저서에 담아내는 과정에서 구체성과 엄밀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필자의 관점이나 관심사에 따라 특정학파나 특정인물에 편중된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개별적인 학파나 인물에 대한 설명이 소략하여 개별학파나 인물에 대한 별도의 심도 있는 저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중국양명학파의 다양한 학파와 인물들에 대한 각론적인 연구가 충분히 진행된 이후에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중국양명학파를 개관하는 저술이 나올 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각론 부분, 즉 중국양명학파의 개별 인물의 생애와 사상을 다룬 저서이다. 황종희의 『명유학안』에 수록된 중국양명학파 인물만 하더라도 총 8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저서로 다루어진 인물은 절중학파의 전덕홍과 왕기뿐이다. 전덕홍 관련 1권과 왕기 관

련 2권의 저서에서는 전덕홍의 양지철학과 왕기의 무위유학 등 이들의 사상적 체계와 특징을 심도 있게 잘 드러내주었다. 반면 강우학파와 관련한 저서는 하나도 없다. 태주학파의 경우에는 이지 관련 저서 2권이 있는 바, 이지의 비판적 사상은 물론 조선 실학과의 연관성도 함께 다룸으로써 이지 연구의 지평을 넓혀주었다.

인물과 관련된 저서의 경우 명말청초의 인물들에 대한 비중이 높다. 특히 문학과 예술 방면에서는 서위 관련 3권과 원굉도 관련 1권의 저서에서 양명좌파의 영향을 받은 예술과 성령주의 문학의 특징과 의의를 밝혀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조선시대 후기 문학 연구에 있어서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본다. 사상분야에서는 황종희를 다룬 저서가 4종으로 가장 많다. 이 저서들은 황종희 사상의 전모를 드러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 의미와 활용 가능성까지도 다루어주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타 당견 관련 1종의 저서에서는 당견의 근대성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양명학과 근대의 접점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중국양명학파의 개별 인물들의 생애와 사상에 관련한 저서들은 중국양명학파와 관련한 연구 환경이 매우 척박한 한국에서 중국양명학파 연구를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점에서 학술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절중학파와 태주학파에 대한 저서가 있는 반면 강우학파에 대한 저서가 단 한 권도 없는 것은 학술적 균형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아울러 역사적·사상적으로 이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지에 대한 전문학술서가 적다는 점 또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둘째, 번역서와 관련한 부분이다. 중국양명학파와 관련한 번역서는 총 29종이 간행되었는 바, 크게 원전 번역서(16종 27권)와 외국문헌 번역서(13종),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중국양명학파의 문집을 한글로 번역한 번역서는 총 16종이 있으나, 이 가운데 『명유학안』에 나오는 인물들(83인)의 문집 번역서는 단 한 종도 없다. 16종 모두 명말청초의 인물들의 문집에 해당한다. 이지의 문집을 비롯하여 주약극, 황종희, 당견, 원굉도의 문집이 번역되었다.

이지의 문집 번역서가 6종으로 가장 많다. 이지의 주요 저작 『焚書』, 『續焚書』, 『道古錄』, 『四書評』 등이 번역되었는바, 이는 국내에서 이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아울러 이러한 다종의 번역서는 이지 사상의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이지 연구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황종희의 문집 번역서는 5종이지만 그 가운데 4종이 『明夷待訪錄』에 대한 번역서로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 외에 당견의 문집인

『잠서』 번역서(2권)와 주약극의 저서 번역서인 『石濤畵論』과 원굉도의 문집 번역서인 『역주 원중랑집』(10권)이 있다. 원굉도는 조선후기 문학 형성에 큰 영향을 준 인물로써 『역주 원중랑집』은 조선후기 문학과 사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양명학파의 방대한 인물과 저서에 비해 번역서 자체가 매우 적고, 그 마저도 이지와 황종희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양명학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중국양명학파의 문집에 대한 번역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중국양명학파 관련 외국문헌에 대한 번역서는 13종이 있다. 중국양명학파 전반을 다룬 총론에 해당하는 번역서와 개별 인물을 다룬 각론에 해당하는 번역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총론의 경우 중국도서 3종과 일본도서 1종 및 서양도서 1종으로 다양한 시각을 읽을 수 있다. 각론의 경우에는 이지, 황종희, 서위, 주약극의 평전 번역과 이지와 황종희의 사상을 다룬 저서가 번역되었다.

외국 문헌 번역서 부분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는 총론 부분에 있어 최근의 연구 성과물들이 번역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학자들의 번역서가 간행됨으로써 다양한 시각을 알 수 있고, 이는 곳 학문의 융복합과 창의성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중국양명학파의 보다 많은 학자들에 대해 연구한 다양한 저서에 대한 번역서 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양한 학자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는 물론 인류가 처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을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박사학위논문과 관련한 부분이다. 중국양명학파를 다룬 박사학위논문은 총 45편에 이른다. 박사학위논문에서 다루어진 학파나 인물은 매우 다양하다. 먼저 중국양명학파를 개관한 논문은 총 6편이 있다. 국내에서 나온 3편의 철학방면 논문은 양명학파 분화 과정과 양명후학 간의 다양한 논변은 물론 양명학파의 원융회통적 특징을 잘 밝혀주고 있다. 아울러 해외에서 나온 3편은 모두 문학방면의 논문으로 양명학이 명대 문학의 형성에 미친 영향과 문학사상의 특징을 잘 밝혀주었다. 다만 저서에서와 같이 중국양명학파를 전체적으로 개관한 학위논문이 매우 적다. 개별 인물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많은 박사학위논문이 나올 필요가 있다.

주요 학파의 인물과 관련해서는 강우학파 관련 1편과 절중학파 관련 3편이 있다. 두 학파의 다양한 인물들에 견주어 볼 때 매우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태주학파와 관련된 논문은 총 10편이 있다. 하심은, 나여방, 왕간에 대한 논문이 1편씩 있고, 나머지 7편은 이지에 관한 논

문이다. 이지와 관련해서는 철학과 문학 두 분야에서 이지의 사상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주요한 3개 학파와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태주학파에 편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이지 관련 논문이 총 14편 가운데 반을 차지한다. 균형 잡힌 연구와 중국양명학파 전체를 제대로 조망하기 위해 강우학파와 관련된 학위논문뿐만 아니라 절중학파나 태주학파에서도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학자에 대한 학위논문이 좀 더 많이 나올 필요가 있다.

명말청초 양명학과 관련한 논문은 총 24편이 있다. 이 가운데 문학·예술·미학과 관련한 논문이 19편을 차지한다. 서위와 원굉도와 주약극의 예술과 문학을 다룬 논문들은 양명학이 문학과 예술로 어떻게 계승 발전되어 가는 가를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철학과 예술의 만남과 소통의 길을 마련해 주고 양명학 연구의 지평을 넓혀주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외에 유종주(1편), 황종희(2편), 당견(1편)의 철학사상이나 정치사상을 다룬 논문이 4편이 있다. 황종희나 유종주 모두 양명학파의 전개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논문이 너무 적다.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넷째, 학술논문과 관련한 부분이다. 중국양명학파와 관련한 학술논문은 총 413편이 있다. ‘양명학파 형성과 개관 논문’은 총 19편으로 총론, 즉 중국양명학파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연구로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다소 부족한 편이다. 그리고 주요한 3개 학파에 있어서도 태주학파 관련 논문(149편)이 강우학파(19편)와 절중학파(35편) 관련 논문을 모두 합한 논문(54편)의 대략 3배에 해당하는 바, 태주학파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중국양명학파의 객관적인 지형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3개 학파에 대한 균형 잡힌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태주학파 관련 논문에 있어서도 총 149편 가운데 이지와 관련한 논문이 102편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연구의 다양성을 위해 태주학파의 다른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중국양명학파 관련한 선행 연구물에 대한 목록화 작업과 더불어 선행 연구물에 대한 분석 작업은 국제 교류에 있어 한국에서의 중국양명학파 연구의 위상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다. 나아가 중국양명학파 연구가 인물이나 사상 연구를 넘어 현대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즉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